

황윤석 『자지록』에 있는 세종이 정한 ‘통고 사성도’에 대하여*

김지홍(경상대학교)

0. 들머리

1976년 경인문화사에서 영인한 황윤석(1729~1791)『이재전서』(상·중·하 3책)에서 하권의 『자지록』(資知錄, 지식에 도움되는 자료들을 모아 적어둠) 662쪽 이하에는 ‘통고사성도’(通考四聲圖, 사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도표)가 실려 있다. 이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만일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경우에 이 자료의 외적 측면 및 그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부록에 실어 놓은 이 도표 속에는, 1615년 간행되었다고 간주되는¹⁾ 명나라 매응조(梅膺祚)의 『자휘』(字彙) 끝에 실려 있는 ‘운법 횡도·직도’를 써서 자신이 표시해 놓은 발음의 근거들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이 시기는 신숙주(1417~1475)가 『사성통고』를 펴내던 시기²⁾와 멀리 떨어져

* 국어학사 분야에서는 필자로서 처음 써 보는 부실한 원고이지만, 경상대학교 동료 교수들이 읽고 의견을 주셨다. 황국정 교수, 고춘화 교수께 감사드린다.

- 1) 오늘날과 같이 출판 신고 내지 등록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출간 연도를 지정하는 일 자체가 무리일 수 있고, 판각을 끝내고 인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또한 일정치 않았다. 그러나 대략 서문이나 발문에 있는 날짜로 근거로 하여 출간 연도를 간주하는 일이 통례이다. 매응조의 형 매정조(梅鼎祚)가 『자휘』의 서문을 썼는데, 만력 을묘(1615년) 맹추(孟陬, 음력 정월) 곡일(穀日, 초여드레)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대략 1615년(우리나라 광해군 7년)에 나온 것으로 본다.
- 2) 만일 『홍무정운 역훈』이 완성된 시기 정도로만 보면 1455년(단종 3년)이다. 만일 이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 새롭게 글자 발음만을 놓고서 책을 엮었다면, 한두 해 더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추정이든 그 간격이 적어도 150년 이상이 된다. 안병희(2002: 13)에서는 신숙주가 또한 “『사성편고』(四聲便攷, 사성을 곧 살펴봄[살펴볼 수 있음])를 편찬하여 『홍무정운 역훈』의 앞에 수록하였다고 한다.”는 추정적

어져 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 도표를, 신숙주가 『사성통고』를 펴낼 당시의 것을 근거로 삼아 작성되었다고 여기기보다는, 아마 뒷날 황윤석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보아, 황윤석의 언어학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누락되거나, 논의 자체를 회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 도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이 도표의 외적 측면들에 대하여 소략하게 다뤄 보려고 하는데, 도표의 내용이 『고금운회 거요』의 맨 앞에 실린 ‘예부운략 7음 36모 통고’에서 소운의 표목자들로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도표는 다음과 같이 일련의 자료들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쪽수는 영인본 쪽수임).

- 『운회』의 서문(654쪽)
- 36자모 7성 청탁의 순서(三十六字母 七音清濁之序:『운회』에서 가져옴, 658쪽)
- 7음을 소리 내는 방식(七音出聲: 명나라 진신모의 『元音統韻』에서 가져옴, 659쪽)
- ‘통고 사성도’(662쪽, ※ 보기에 편하도록 필자가 조금 고쳐서 부록에 실었음)
- 훈민정음 제성(667쪽)
- 『역훈무정운』의³⁾ 서문(『동문선』에서 가져옴, 670쪽)

언급이 있지만, 안병희(2004, 2009 재수록: 213)에 제시된 복원 체재를 보면, ‘사성 편고’가 들어 있지 않고, 오직 제1책(권수)에 ‘사성 통고’만이 들어 있다(제2절의 각주 46을 보기 바람).

- 3) 민족문화추진회(1969, 1982 수정 중판: 433, 768) 『동문선 VII』에는 ‘홍무정운 서’로만 되어 있고, 고려대 출판부(1974) 『홍무정운 역훈』 속에 있는 원본의 영인 내용들에서는 표제가 ‘홍무정운’으로만 되어 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한 1645년 중간 『보한재집』 권15에는 ‘홍무정운 역훈 서’로 되어 있다. 안병희(2004, 2009 재수록)에서 제안된 결본 복원(재구성)에서는, 굳어진 학계의 관례에 따라(『보한재집』에 표시된 제목을 따름) ‘홍무정운 역훈 서’로 제안되어 있다. ‘역훈’이란 말은 ‘한훈’(漢訓 중국 발음)을 표기하다(번역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결본(1권 또는 2권)에서, 실제로 그 제목에 ① 역훈이 앞쪽에 있는지(홍무정운의 글자 발음을 표기하다라는 ‘술어+주어’ 구조) 또는 ② 뒤에 있는지(홍무정운에 대한 글자 발음 표기를 뜻하는 ‘명사 나열’ 구조), 그리고 ③ ‘역훈’이란 낱말을 썼는지, 아니면 ④ ‘역’이란 낱말만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 보아야 할 과제로 보아야 온당할 듯하다.

한편, 역훈(譯訓)이란 말뜻은 안병희(2004, 2009 재수록: 199쪽)에서 “한훈(漢訓)

· 『동자습』의 서문(『동문선』에서 가져옴, 672쪽)

I. 이재 황윤석과 『자지록』

순서상, 먼저 이재 황윤석(1729~1791, 이하에서는 간단히 ‘이재’로만⁴⁾ 부르기로 함)을 다룬 앞선 연구 업적들로부터 관련 대목들을 요약하기로 한다. 이재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집들이 영인되면서 시작되었지만,⁵⁾ 그가 평생을 써 둔 방대한 총 57권의 일기가 『이재난고』로 출간되면서⁶⁾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 번역”이라고 보았고, 한훈을 “한자의 중국 발음”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역훈은 “[한자의 중국 발음]에 대한 번역” 또는 “한자의 중국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으로 풀이된다. 세조 실록(1456년 4월 9일 기사)에 있는 ‘증입언문(增入諺文) 홍무정운’(홍무정운 속에 언문만을, 즉 발음표기만을 더 들여 놓음)이란 표현도 인용하였다. 역훈은 결국 “한자의 중국 발음에 대한 한글 표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역(譯)이 단독으로 가리키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며, 훈(訓)이 잉여적인 말이 되어 버린다.

성종 실록 1475년 6월 21일에 영의정 신숙주의 졸기가 씌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바른 한자음을 해득하고 중국어에 통하였으며, 『홍무정운』을 번역하여, 중국 현지음을 배우는 이들이 많이 이 책에 의존한다.”(解正音通漢語, 翻譯洪武正韻, 學漢音者多賴之)고 하여, 역훈이란 말을 쓰지 않고 번역이란 말을 썼다.

- 4) 황윤석의 호는 9개 정도가 찾아진다(이재연구소 2009의 정구복 9쪽, 황의동 35쪽, 최영성 79쪽). 이 중 아버지 황전이 지어 준 이재(頤齋)는 주역의 괘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다. 위아래 턱으로 음식을 잘 씹어 몸을 기르고(養) 오래도록 보존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최영성 79쪽). 강신항 외(2007)에 있는 권오영 179쪽 이하에서는 ‘언어와 음식을 삼간다’(慎, 節)는 뜻으로 풀였으며, 이재가 지은 ‘목주 잡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목주(木州)는 1779년 그가 51세 때 현감을 지내었던 충남 천안 목천의 옛이름이다.
- 5) 이재 문집의 출간과 소장처 등은 노혜경(2003) “이재 황윤석의 문헌자료 검토: 문집을 중심으로” 『장서각』 9호에서 자세히 다뤄졌다. 이재 문집은 1829년 『이재 유고』, 1943년 『이재선생 유고』 및 『이재선생 유고 속』이 출간되었다. 영인본은 경인문화사에서 1975년 『이수신편』(2책), 1976년 『이재 전서』(3책), 1999년 『이재선생 문집』(5책)이 나왔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 2000년 『이재 유고』(한국문집총간 246집)을 출간하였다. 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4년부터 10년에 걸쳐 2004년 『이재난고』(색인 별권 포함) 10권을 출간하였다. 이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현재 세 권이 나와 있는데, 발간 연도에 따라 최삼룡 외(1994), 강신항 외(2007), 이재연구소 엮음(2009)이다.
- 6) 방대한 9권의 탈초본은 가히 획기적 업적이며, 국가 차원의 사업이다. 전체 내용을 누리집을 통하여 한국학 중앙연구원 왕실 아카이브(<http://yoksa.aks.ac.kr>)에서 탈초된 원문을 읽고 검색을 하며, 복사물로 올려 있는 초서본과 대조해 볼 수 있다.

방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지금까지 나온 세 권의 종합 연구서(최삼룡 외 1994; 강신항 외 2007; 이재연구소 2009)에서는 집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재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되었고, 더욱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덧붙이고 있다.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범위 또한 백과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부류들이 ‘박물학’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재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걸쳐 변동과 혼란이 교차하던 시기였다.⁷⁾ 현재 이재가 과연 실학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겨루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록 이재가 경세치용이라는 실용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단지 주희를 높이고 송시열을 따르는 성리학자일 뿐이라고⁸⁾ 본다(하우봉 1986; 김기현 1986; 최영성 2006). 다른 쪽에서는 박학하게 공부하고 실사구시를 추구하였으므로 충실한 실학자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이강오 1994; 윤사순 1994, 2009). 일부에서는 두 영역을 모두 겸하였다고 서술하기도 한다(권오영 2007; 황의동 2009).

이재가 언어에 관심을 두었던 일은, 비록 성리학적 뼈대 위에서 추구되었지만, 이재가 접하던 18세기 북경에서 들여온 서책이나 문물에 대한 관심 따위는 실용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의 글에 우리말을 해석하면서 간혹 자주

초서 원본은 색도를 써서 더 정밀히 스캔을 하여 올려 준다면, 연구자들이 일일이 대조해 보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듯하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조선 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경상대학교 문헌각 등)은 이전의 학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호화스런 환경을 제공해 주며,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국민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준다.

- 7) 정만조(2007) “영조 말, 정조 초의 정국 동향”(강신항 외 2007 수록)에서는 당시 정치 상황들을 매듭지으면서, 탕평 정국이 무너진 가운데 당파 간뿐만 아니라 당파 내에서도 이합집산이 거듭되는 혼미한 양상으로 다음처럼 서술하였다. “『이재난고』에서는 노론이 망하고 소론 세상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장차는 남인의 득세기가 오리라고 예상하였다.”(334쪽의 결론). 이는 영·정조 시기를 문예 부흥기로 보려는 시각과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서술 내용인 듯하다. 피상적으로, 필자는 이재 또는 유희 같은 대학자들이 문과에 붙지 못한다는 사실이 영·정조가 혼란스런 시기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 8) 황의동(2009: 73) “이재 황윤석의 성리학 연구”(이재연구소 2009 수록)에서는 ‘기(氣)가 나온 다음에 이(理)가 그것을 따라 나온다’(氣發而理隨之)는 정도를 이재의 특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매듭 지었다.

적 설명도 관찰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여기에 무게를 두어, 나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을 엮어 나가는 주체적 세계관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21세기 시점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조감한다면, 세종 때의 한 축과 개화기 때의 한 축 사이를 이어 주는 과도기 흐름으로 간주될 소지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하여, 전통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당시 격동하는 흐름을 배척하고 백안시하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흐름에도 관심을 두면서 차츰 포섭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국어학사의 서술이 긴밀히 종합적인 문화사적 관점과 맞물려 탄탄하고 자세하게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만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이재를 성리학자라든지 실학자로 평가하는 일, 또는 이재가 평생 송학(宋學)을 추구해 나갔는지 청학(淸學)도 함께 추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논의에서 긴요하지 않으므로 삼가기로 한다.

국어학사 속에서 이재에 대한 자리 매김을 해 주려면, 당시 교류하였던 쟁쟁한 학자들로서 홍계희·신경준·정동유 등의⁹⁾ 업적들과도 포괄적으로 비교될 필요가 있다. 언어학자로서 이재를 다룬 논문들은 1970년대 전후로 나오기 시작하였다.¹⁰⁾ 그렇지만 양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질적으로 풍부하게

9) 이재연구소(2009) 엮음에 있는 배우성 논문은 이재와 홍계희를 비교하고 있고, 최영성(75쪽, 91쪽) 및 하태규(120쪽)에서는 이재가 신경준과 학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이재난고 색인집』을 찾아보면, 신경준 80건, 홍계희 67건, 정동유 19건이 올라 있다. 이런 수치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이재난고』를 끈질기게 전체적으로 통독하면서 좀더 철저히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류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에, 같은 시대의 언어학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당시 지성계의 관심사항이 어떻게 어디에 모아져 있었는지를 놓고서 유기적으로 다뤄 나가야 할 것이다.

10) 이재의 업적을 다룬 단독 논문이나 번역서로서 필자는 현재 다음과 같이 9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이외에도 혹 석사 또는 박사 논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위 논문으로 이재를 다루려면 연구자의 관련 지식이 상당한 정도로 갖춰지지 않고서는 아마 짧은 기간 안에 써 내기가 불가능할 듯하다.

-이승녕(1969) “황윤석의 ‘이수신편’ 고찰”, 이승녕(1978)『국어학 연구』(형설출판사)에 재수록됨

-유재영(1970) “이조 후기 국어학에 공헌한 실학사상”, 원광대『논문집』 5집

-김석득(1983) “이재 황윤석의 ‘화음 방언 자의 해’”,『동방학지』40집

-이종철(1981) “화음 방언 자의해에서 본 몇 가지 국어 어원에 대하여”,『국어교육

입체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종합하는 일이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재가 직접 모아 놓은 『자지록』(資知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재의 문집은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판각되고 간행되었다. 그렇지만 『자지록』은 대체로 다른 원자료로부터 뽑아¹¹⁾ 손수 친필로 옮겨 묶은 것이므로,¹²⁾ 후손들이 문집의 판각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직 1976년에 영인본을 낼 적에 목판 간행된 문집과 더불어 『이재 전서』(3책)의 하권으로 영인되어 나왔을 뿐이다. 또한 온 정열을 쏟아 부으며 ‘이수’(理藪)에¹³⁾ 대하여 새로 엮어 놓은 『이수 신편』이 또한 1975년 두 권으로 영인되어 나왔다.

사후에 나온 문집들은 유고들을 취사 선택한 후손들의 관점이나 편집 방침이 반영되어 있다. 거꾸로 보면, 이는 일관되게 지녔던 이재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38호

-최전승(1994) “이재 황윤석의 ‘화음 방언 자의 해’와 ‘이수 신편’ 등에 반영된 어휘연구의 성격” 최삼룡 외 (1994)에 수록됨

-강현규(1995) 뒤집『역주 영인 ‘화음 방언 자의 해’』(삼광출판사)

-강신항(2009) “황윤석의 국어 인식”, 강신항 외(2009)에 수록됨

-심소희(2010a) “황윤석의 정음관 연구 1: ‘이수신편’ 권12의 ‘경세사상 체용지수도’를 중심으로”, 『중국 어문학 논집』62호

-심소희(2010b) “황윤석의 정음관 연구 2: ‘이수신편’ 권20의 ‘운학 본원’을 중심으로”, 『중국 어문학 논집』 64호

- 11) 기본 형식은 각 자료의 표제 아래 작은 글자로 주석을 ‘出○○○’(～에서 가져옴)로 써 놓았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본문의 행 속에 소(疎)의 형식으로 두 줄로 주석을 달아 놓기도 하였다. 꺾선을 없지만 본문 난 위에 두주(頭註)의 형식으로 원자료의 틀린 글자를 고쳐 놓거나(이는 인용된 자료의 출처와 성격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는 추가 설명을 베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피상적인 관찰 기술에 지나지 않고, 정작 본문 속에 들어 있는 주석 및 본문 밖의 두주 사이에 찾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성격들도 깊이 천착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룰 ‘통고 사성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숙주가 「사성 통고」를 펴낼 때에는 결코 「자취」의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의 인용에서는 ‘운법 횡도·직도’의 내용을 그 도표 속에 집어 넣고, 소운(小韻)도 79개를 설정함으로써 원형을 변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형 또는 변용이 틀린 글자를 본문 밖의 두주에서 고쳐 놓는 매우 신중한 태도와 어떻게 모순되지 않도록 서술할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 12) 물론 자신이 보냈던 편지도 일부 들어 있다. 가령, 양명학자로 알려진 정제두에게 운서에 관해서 보낸 글이다(「자지록」265쪽).

- 13) 주어와 술어로 해석하여 ‘사물의 이치들이 가득 모아져 있음’ 또는 명사의 나열로 해석하여 ‘이치 저수지’ 정도로 새길 수 있다.

가려 버리거나 흐려 놓을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직접 친필로 씌어지고, 한데 묶인 『자지록』과 『이수 신편』은 이제 자신의 신념이나 시각을 역추적하는 데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아직 이 두 자료에 대한 편집 방침이나 이 책자들을 관통하는 특정한 이념 또는 신념체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일후에 박물학적 관점을 꿰뚫어 보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척된다면, 그런 시각도 귀납하여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지록』과 『이수 신편』의 경우에, 원자료를 옮겨 편집한 부분에서는 원자료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준다. 가령, 1975년 영인된 『이수 신편』(1777쪽) 「운법 횡도」에서 ‘입양’(入孃)이라는 오자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뒤에, 오직 난 밖의 윗칸에¹⁴⁾ 따로 “입(入) 아래 있는 양(孃)이란 글자는 군더더기로 잘못 들어간 글자이다.”(入下孃衍字)라고 적어 놓았다.¹⁵⁾ 또한 『자지록』(654쪽) ‘운회 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태도가 보인다. 원문의 오자를 함부로 고쳐 놓지 않고, 다만 두주에다 소무(昭武,¹⁶⁾ 지금 복건성

14)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난외 두주’(欄外頭註)라고 하여야 정확하겠지만, 이하에서는 ‘두주’라고만 부르겠다.

15) 필자가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에서 복사하여 보고 있는 조선 판본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들어 있다(「운법 횡도」 제14장 뒷면임). 심소희(2010b: 90)의 각주 7)에서는 “孃 자는 聲의 誤記인 듯하다.”라고 적어 놓았다. ‘속수 사고전서’에 들어 있는 판본의 「운법 횡도」에는 ‘入聲’으로 씌어 있다. 아마 심소희 교수가 중국 판본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이재가 난 밖의 윗칸(이하 ‘두주’[頭註]로 부름)에 적어 둔 내용을 심소희 교수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소희 교수가 참고한 영인본이 아마도 부주의하게 두주들을 모두 없애 버린 판본이었을 듯하다. 1975년 심악 선생이 해제를 쓴 『이수 신편』(상, 하권)이 아세아문화사에서 나왔는데, 그 영인본의 1777쪽을 보면 “入下孃 衍字”라는 두주가 적혀 있다. 이 두주를 따르다면, 聲도 또한 군더더기 글자(衍字)이므로 일관되게(평·상·거에 모두 聲이 없음) 제거되어야 옳을 것이다.

이제는 비록 원래 책자의 글자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오류를 직접 본문 속에서 고쳐 놓지 않았다. 대신, 따로 두주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데, 이는 매우 신중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16) 명 가정 판본(2000년 북경 중화서국 간행)과 청 광서 판본(1979년 대북 대화서국 간행)에도 소무는 昭武로 씌어 있고, 교정되어 있지 않다. 1975년 로젠(Rosen)의 해제를 달고 출간된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에는 관련 서문들이 들어 있지 않고 본디 소장처도 밝혀져 있지 않다. 대신 ‘한국본’(Korean edition)으로만 부르고 있어 막연하고 미편하다. 로젠 해제의 번역에도 昭武로 적혀 있다.

에 있음)의 “소(昭)는 (邵)의 오자이다.”라고 써 두었다(邵武가 옳은 글자임). 이런 신중한 태도 때문에, 심소희(2000a: 94쪽)에서 이재가 참고하고 있는 책들을 추적하여 개별 글자들을 비교함으로써 『강희 자전』 앞에 실린 「등운 절운 지남」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재난고』에는 이재가 『사성통해』를 소장하는 흥미로운 과정이 소상히 적혀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재난고 색인집』의 ‘사성통해’ 항목(22군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769년(이재의 나이가 41세임) 음력¹⁷⁾ 3월 23일 김용겸(金用謙)으로부터¹⁸⁾ 효종 때(1656년)¹⁹⁾ 그의 집안에 하사된²⁰⁾ 『사성통해』(2책)를 처음 빌려 보았고, 5월 3일에 돌려 주었다. 같은 해 4월 24일에는 『사성통해』와 서로 대조해 보기 위하여 조인숙(趙仁叔)으로부터 1751년 홍계희가 펴낸 『삼운성회』를 빌린 뒤, 5월 2일에 돌려 주었다. 몇 차례 또 『사성통해』를 빌려 보다가, 1771년(이재의 나이가 43세임) 4월 17일에는 김용겸의 소장본에 제70장과 부록된 옥편이 없음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김용겸에게 편지로 알렸다. 같은 해 5월 17일, 김용겸은 홍계희 집안에 있는 광해군 때(1614년)²¹⁾

17) 이하의 날짜 표시에서는 편의상 ‘음력’을 모두 생략해 두기로 한다.

18) 김용겸(金用謙 1702~1789)은 김상헌의 후손이며,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손자이다. 1721년 신임사화 때 백부 김창집이 사사되면서 전주로 유배되었다가 4년만에 풀려났다. 1748년에 선공감 감역에 제수된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1778년 우승지에 임명되어 숙종을 자주 뵈었고, 1786년 공조판서를 지내었다.

19) 이재는 이를 병신본(丙申本)으로 부른다. 현 시점에서 실제로 대조 조사할 기회가 전혀 없지만, 아마도 이런 이름은 내사기(內賜記)를 고려한 명칭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홍계희 집안의 갑인본과 서로 장수 및 1장 속의 줄(界線)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없어진 제70장만 빈 선을 찍어 놓고 그대로 끼워 넣었다. 따라서 두 판본이 동일한 판목으로부터 나왔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동일 판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동일 판목에서 나온 두 책자가 다른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즉, 표지 이면에 흔히 적히게 되는 ‘내사’(內賜) 기록의 연도를 중심으로 이름을 달리 붙였다고 보는 것이다. ‘내사’에 대한 자세한 뜻은 안병희(2009: 제7장)에서 배울 수 있다.

20) 『이재난고』제3권 648쪽에, “효종 병신년(1656년) 김용겸(1702~1789)의 증조부인 김수항이 집의로 있을 적에 중국어 강관(講官)을 지내었기 때문에 하사받은 것이다”(卽孝廟丙申, 其王父文谷相公, 爲執義時, 以漢語講官, 受賜者也)

21) 이를 이재는 갑인본(甲寅本)으로 부른다. 김용겸 소장본과 같이 아마 내사 기록의 연대에 근거한 명칭일 듯하다. 강신항 교수의 친필 해제가 들어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문고의 『사성통해』영인본은 1614년 ‘중간 목활자본’으로 적혀 있다. 이

내사된 판본 중에서 하권을 빌려 이재에게 보내 주었다.

1771년 당시 종7품 종부시 직장으로 있던 이재는, 교서관 인쇄공 황운창에게 종이값 1냥, 먹과 밀랍값 3전, 제본비 2전을 주었고, 두껍고 좋은 종이를 사 고서 직원 두 명을 데리고 판목이 보관되어 있던 사역원으로 가서 인쇄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마침내 『사성통해』를 갖게 되었다. 당시 판목들에는 김용겸 소장본(병신본)처럼 하권 제70장의 판목이 없었다. 따라서 그 장은 빈 선만을 인쇄하고 끼워 넣은 뒤²²⁾ 나중에 홍계희 소장본(갑인본)으로 직접 써서 보충해 놓았다(札一葉).

이와 같이 『이재난고』에 적혀 있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또한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필자는 비록 관련 항목만을 골라서 읽었지만, 대상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삼가는 신중한 태도를 종종 느낄 수 있었다. 최세진을 놓고서 안병희(2007: 51쪽)에서는 모르는 것을 솔직히 모른다고 표현해 놓는 신중하고 치밀한 그의 학자적 태도를 극찬하고, 걸출한 업적을 남긴 데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한” 바 있다. 필자는 또한 이재의 글에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그런 태도도 관찰할 수 있다.

판본이 홍계희 집안의 갑인본과 동일한 것이다. 대제각에서는 이 영인본을 축소하여 여러 차례 찍어내었다.

- 22) 『이재난고』 제3책 718쪽에 “교서관 인쇄장 황창운을 불러 ... 모두 1냥 5전을 주고 ... 사역원으로 가서 『사성통해』 2책을 인쇄하도록 요청하여 받았지만, 판목이 없어진 제70장은 모름지기 빈 선만을 집어 넣은 채 인쇄를 하여 붓으로 한 장을 직접 써 놓았다.”(招校書館印出匠 黃運昌, ... 共給一兩五錢 ... 赴譯院, 印納四聲通解二冊, 而缺板處, 須入空界印, 札一葉)라고 적어 두었다.

II. 『사성통고』, 『홍무정운 역훈』, 『사성통해』

『홍무정운』과²³⁾ 『홍무정운 역훈』의 관계,²⁴⁾ 『홍무정운 역훈』과 『사성통고』의 관계, 그리고 『사성통고』와 『사성통해』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잘 밝혀져 있다. 이 세 가지 책자를 대변하는 용어가 이른바 ‘정음, 속음, 금속음’이다. 『사성통해』에는 앞의 두 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또한 최세진 스

23) 『홍무정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영기부(甯忌浮 *Ning Jifu* 2003)이다. 1375년(홍무 8년)에 절강 사람 송렴(宋濂)이 서문을 쓴 76운 및 1379년(홍무 12년) 오침(吳沈)이 서문을 쓴 80운이 있었고, 1390년(홍무 23년)에도 중원의 발음을 알고 있는(朱元璋口耳所習, 卽是中原之音, 영기부 2003: 3쪽) 주원장이 “글자의 뜻과 발음의 반절이 아직 능히 모두 다 마땅히 되어 있지 않다.”(字义音切, 未能尽当)고 여겨 한림원에 다시 교정을 보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교정본은 출간되지 않았다. 신숙주가 보았던 것은 오직 76운이었다. 홍계희 서문을 달고 1752년 나온 판본도 역시 76운이며, 형왕부에서 펴낸 중쇄본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 영기부(甯忌浮 *Ning Jifu* 2009)의 상편 제1장과 제2장, 하편에서도 그대로 언급되어 있다. 당시 14세기를 전후로 하여서는 음운에 관한 책들이 별떼처럼 출간되었던(音韻蜂出; 50종이 넘었다고 함) 시기였는데, 새로 나라를 세운 명의 조정에서는 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그 시행 결과가 관운(官韻)으로 불렸다. 그렇지만 영기부(甯忌浮 *Ning Jifu* 2009: 5쪽)에 따르면 명나라에서는 시와 부로 과거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입말 발음과의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영기부(甯忌浮 *Ning Jifu* 2003: 9쪽 이하)에서는 실패 원인을 5가지로 지적하지만, 중국쪽에서 『홍무정운』이 늘 홀대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뒤 시대에도 동일 계열의 운서들이 다수 출간된 바 있는데, 1460년 현실음을 반영하여 입성들을 없애고 펴낸 장보(章黼)의 『(병음연성) 운학집성』 서문에서는 운서들 사이의 관계를 다음처럼 비유하였다. “고금에 운서로 이름을 날린 것이 한둘이 아닌데, 『광운』은 기둥이고, 『운회』는 서까래이다. 『홍무정운』은 여러 재목들을 골라 너른 집을 마련했으며, 『용감수경』 등의 여러 운서는 이를 담장으로 둘러 보호하고 기특한 물건들로 채워 놓았다.”(古今以韻名家者不一, 廣韻棟梁也, 韻會榱桷也, 洪武正韻擇衆材而修廣居也, 龍龕諸韻衛之以城郭實之以奇貨也)

24) 『홍무정운』은 ‘정음’에 대한 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으로 보내는 외교 문서에 쓰일 글자체(이른바 ‘사자’[寫字])에 대한 표준(또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무시되던 것과는 달리, 1770년 홍계희의 서문을 달고 『홍무정운』이 복각된 사정도 또한 『홍무정운』이 여러 측면에서 표준이 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제각에서 여러 차례 영인된 『홍무정운』의 마지막 장에는, 조선 영조 28년(1752년) “경연에 참여한 신하[홍계희]가 말씀을 올려 교서관에서 번각하도록 명하였다.”(因筵臣建白, 命校書館翻刻)라고 판각되어 있다.

스로가 추가해 놓은 ‘금속음’이 더 들어 있어서, 앞의 두 책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이는 앞의 두 책자가 우연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처음 이승녕(1959)에서 『홍무정운 역훈』의²⁵⁾ 존재가 알려진 뒤로, 김완진(1966), 이동림(1968), 성원경(1971), 정연찬(1972), 박병채(1973), 김무림(1999)등의 연구가 이어졌다. 1972년 『홍무정운 역훈』이 고려대학교에 기증됨에 따라(‘화산문고’로 불림), 고(故) 박병채 교수에 의하여 전해지지 않는 제1~2권이 복원되고, 고려대학 출판부에서 1974년 『홍무정운 역훈』으로 출판되었다. 그 뒤 그간의 관련 논문들을 모은 박병채(1983)가 나왔다. 최근에 또한 안병희(2004 → 2009)가²⁶⁾ 출간되었다.

특히 안병희(2009)에서는 전해지지 않는 『홍무정운 역훈』의 권수(卷首)를 2책으로 추정하여 복원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박병채(1974, 해제)를 비판적으로²⁷⁾ 검토한 뒤에, 새로운 복원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오직 이 글과

25) 정작 해당 책자의 이름이 『홍무정운 역훈』인지, 아니면 이재가 적어 둔 『역 홍무정운』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론을 확정적으로 내릴 수 없다. 단지 잠정적으로 『보한재집』에 실린 서문의 관례를 따를 뿐이다. 중국학자들도 우리쪽 관례에 따라 ‘역훈’이란 말을 쓰고 있다.

26) 안병희(2004) “『홍무정운 역훈』과 그 권수의 편차” 『한국어 연구』2에 실린 글인데, 안병희(2009)에 재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안병희(2009)로만 언급할 것이다.

27) 고려대에 기증되어 화산문고 소장본으로 불리는 『홍무정운 역훈』에는 발음 부분이 오려진 뒤 다른 종으로 덧대어 새로운 발음을 붉은 먹(朱墨)으로 쓰거나 또는 검은 먹으로 지운 뒤에 가필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이승녕(1959: 297쪽)에서는 ‘전제’(剪除 잘라 없애다)란 말을 썼고, 이동림(1975: 19쪽)에서는 ‘개날’(改捺, 고쳐 찍다)이란 말을 썼으며, 박병채(1983: 32쪽, 33쪽)에서는 ‘전제’와 ‘절제’(切除 끊어 없애다)란 말을 썼으며, 안병희(2009: 205쪽)에서는 ‘칼로 오려낸 뒤’란 쉬운 말을 썼다.

박병채(1973, 1983의 제1장으로 재수록됨: 33쪽의 각주 29와 30)에서는 직접 심약 선생에게 질의하여 ‘전제’된(잘라 없앤) 부분이 있었으나, 붉은 먹으로 가필되어 있지 않았다는 회고담을 적어 놓았다. 따라서 박병채 교수는 이성의 씨가 가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안병희 2009에서도 그렇게 추정하였음), 뿐만 아니라 이런 가필에 “상당한 오류가 발견된다.”고 분명히 각주에 적어 놓았다.

그렇지만 안병희(2009: 201쪽 각주 2)에서는 박병채 교수의 이런 지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아마 오직 영인본에 있는 해제만을 염두에 두었던 듯함), 화산문고에 소장된 중국본 『홍무정운』책머리 칸(천두[天頭]로 표현하였음)에 『홍무정운 역훈』의 발음들을 옮겨 적어 놓은 것이 박병채 교수의 복원에 영향을 주었을 것

관련하여, 필자가 이해한 두 글의 핵심 논의는, 세종이 정한 「사성통고」에 대하여 최세진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록을 무시하거나 무위로 돌리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고(故) 안병희 교수는 전적으로 최세진의 기록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 복원을 진행하였다. 정동유(1806) 『주영편』의 전통을²⁸⁾ 그대로 잇는 생각이다. 그러나 고(故) 박병채 교수는 후자 쪽의 태도를 취하였는데, 아마 안병희(2009) 이전까지 있었던 학계에서의 생각을 반영하는 듯하다.²⁹⁾

이 글에서 다루는 「통고 사성도」의 존재는, 전적으로 안병희 교수의 결론을 지지하고 뒷받침한다. 다시 말하여, 세종이 정한 것은 『고금운회 거요』의 소운

으로 추정하고, “책 소개에서 그 주기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적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미 주기(朱記 붉은 글씨로 주석처럼 적어 놓음)에 대하여 박병채(1973, 1983의 제1장으로 재수록됨)에서 분명히 언급해 두었는데, 마치 주기(朱記)의 존재를 일부러 감추어 버린 듯한 인상을 심어 주는 서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28) 정동유(1744~1808)가 쓴 책을 필자는 남만성(1971) 뒤집 『주영편 상, 하』(을유문고 77~78)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정동유 자신도 직접 『사성통고』도 볼 수 없었고, 『홍무정운 역훈』도 볼 수 없었다. 단지 『사성통해』만을 의지하여 세종이 정한 「사성통고」가 신숙주가 펴낸 간략본 『사성통고』 앞에 붙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9) 안병희(2009)에서의 반대 논의 이전에는, 대체로 아마 박병채(1974 해제 435쪽)와 비슷한 쪽으로 생각했던 게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첫 논의인 이승녕(1959: 132쪽)에서도 “세종이 정한 사성통고의 문(文)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하였다. 박병채(1983: 147쪽)에서는 “사성통고는 따로 앞쪽에 이를 붙여 두었다.”(四聲通攷 別付之頭面, ‘사성통고’의 주제화 이동으로 말미암아, 대명사 ‘之’는 다시 사성통고를 가리킴)를 “...別付之省略”(따로 이를 붙여 놓는 것은 생략하였다, 또한 대명사 之를 없앤 채 ‘別付省略’으로도 말함)으로 계획 수정을 단행하였고, “십중 팔구는 부재(附載, 붙여 싣는) 계획이 철회된 것이 아닌가” 보았다(35쪽, 43쪽). 비슷하게, 강신항(2000: 141쪽)에서도 “세종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 세종이 신숙주의 기술대로 「사성통고」를 직접 편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신항(2003a: 226쪽 각주 82)에서는 세종소정(世宗所定)을 “반드시 세종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종이 짓게 하였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통고 사성도」는 『고금운회 거요』에 있는 소운들의 표목자를 도표로 더욱 간결하게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따로 시간을 들이며 힘들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동국정운』을 만들어 가는 중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했을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따라서 과장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여 세종이 특별한 책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생각 자체가 오류일 뿐이라고 본다. 세종이 글자 창제에 반대하는 속된 사류들에게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고 호통친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표목자들을 더욱 간결하게 일람할 수 있도록 도표로 엮어 놓은 것이다. 이는 결국 『동국정운』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중간 단계로 존재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성통해』에 표시된 음들의 계통은 ‘정음·속음·금속음’으로 나뉜다. 이를 이영월·장재웅(2005: 70)에서는 ‘3중 구조’의 음운체계라고 불렀다. 속음과 금속음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어 15세기와 16세기의 북방음(북경음)으로³⁰⁾ 보고 있다.³¹⁾ 그런데 『홍무정운』이 표시하는 ‘정음’에 대해서는 중국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왕력(1981, 1986 재간)에서는 많은 방언들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³²⁾ 그렇지만 나상배

30) 정광(2004a, 2004b, 2009)에서는 ‘한아어’(漢兒語)로 부른다. 이를 이민족을 포함하여 중국 북방사람들이 쓰는 말로 풀이하였는데, 특히 정광(2010: 385 이하)에서는 고립어도 아니고 교착어도 아닌 ‘변칙적인’ 언어(두 언어가 뒤섞인 creole)였지만, 나중에 행정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문(吏文)으로도 불렸으며, 『원본 노걸대』가 입말로 쓰이던 한아어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또한 392쪽에서도 “대원통제·지정조격·원전장 등에 사용한 한어 문장은, 고문(古文)이나 백화문과는 다른, 엉터리 구어(口語)인 한어에 근거하여 발생한 문어(文語)로서, ‘몽문(蒙文) 직역체’라고도 하며, 주로 행정 문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문(吏文)이라고도 한다.” 더욱 자세한 논의는 양오진(2008)에서 살펴볼 수 있다.

31) 원나라가 멸망하여 명나라가 들어서자 명나라에서는 원나라 때의 잔재를 없애려는 노력들을 하였다. 이는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원나라 때에는 북경 중심의 말이 ‘한아어’로 불리던 것이, 명나라 때에는 북경 중심이 말이 북방 관화(官話)로 불린다. 원나라 때에는 관화란 말을 쓰지 않았고, 명나라 때부터 나타났다(耿振生 2007 역음의 ‘역음이 머리글’을 보기 바람). 양오진(2008)을 보면, 『노걸대』『박통사』 속에 있는 표현들이 명나라 때에는 쓰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세진의 『노박집람』에서 찾을 수 있는 언급을 통해서, 그리고 현지 토박이인 중국인들이 그런 대목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그런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스런 언어 변화에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책에 따른 것인지는 필자로서 잘 알 수 없다. 양오진(2008)은 이런 어휘 변화뿐만 아니라 문법적 변화까지 다루고 있는 첫 업적이며, 필자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32) 이승녕(1959: 304)에서는 왕력 『중국 음운학』을 인용하였는데(하권 226쪽), 1936년에 초판이 나왔고, 1956년에 재판이 나온 듯하다. 또한 1986년 산둥교육출판사에서 펴낸 왕력 문집 제4권 『한어 음운학』 437쪽에 동일한 내용이 그 절의 결론으로 서술되어 있다(許多方音 雜糅而成的). 1986년 재출간된 왕력 문집 제4권 『한어 음운학』(산둥교육출판사) 435쪽에서도 “홍무정운은 많은 방언 음들이 잡스럽게 뒤섞여 있다.”(洪武正韻 … 是許多方音的雜糅)고 언급하였다.

(1978: 189)에서는 당시 통용되던 독서음으로 보았다.³³⁾

강신항(1973 및 2003에 재수록된 1972)에서는 정음을 남방음(남경을 중심으로 한 현지 발음)으로 보았고, 리득춘(1994: 171쪽과 제9 장)에서는 왕력(1981)의³⁴⁾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방언들의 혼합음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재돈(1993)에서는 나상배처럼 당시 북경에서 쓰이던 독서음으로 보았고, 장위동(2000) 이영월(2004) 주성일(2008, 2011)에서도 또한 똑같이 독서음으로 간주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도 또한 정음(正音)을 독서음(讀書音)으로 보는 입장에 동의하며, 제IV절에서 독서음의 정체를, 공거조식의 예시를 통하여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응시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기준이 되는 한자음이라고 논의할 것이다.

최근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한훈(漢訓)·향훈(鄉訓)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는 안병희(2002: 14쪽, 2009: 199쪽)에서가 처음일 듯하다. 훈(訓)을 뜻풀이(釋)으로 여기는 여느 풀이와는³⁵⁾ 달리, ‘발음’을 가리키는 것으

33) 『나상배 어언학 논문선집』(1978, 대북: 구사출판사)속에 들어 있는 “드라그노프 「파스파 글자 및 옛 관화」를 논함”에서는 소련 학자 드라그노프(龍果夫) 교수의 갑류·을류 견해를 상당 부분 찬성하면서 “그와 같은 두 계통이 관화 및 방언을 대표할 수도 있고, 또한 독서음과 백화음일 수도 있다.”(這兩個系統, 一個是代表官話的, 一個是代表方言的; 也可以說一個是讀書音, 一個是說話音)고 보았다. 이를 이재돈(1994: 188)『중국어 음운학』(살림)에서는 “반면, 나상배에 의하면 당시 중원에서 통용되던 어음체계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관운(官韻)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을 대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하나는 독서음, 하나는 구어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중원 음운』이 구어음을 반영한 반면, 『홍무 정운』은 관화음, 즉 독서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요약하였다. 그렇지만 왕력의 견해도 고려하면서, 곧 이어서 “당시 강남 일대의 어음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절충형 운서”로 규정하였다. 이재돈(2007 앞책의 증보판 형태임: 249)『중국어 음운학』(학교방)에서는 독서음을 ‘문언음’으로, 구어음을 ‘백화음’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34) 이 책은 1986년 왕력 문집 제4권『한어 음운학』(산동교육출판사)으로 재출간되었다.

35) 훈(訓)에 대한 『설문해자』의 풀이는 ‘說教也’(풀어 가르치다)이다. 이를 ① 서개(徐鍇)는 “그 뜻을 잘 통하게 하여서 그것을 풀이한다.”(順其意, 以訓之也)로 설명하였다(중화서국 1987년 간행본, 44쪽 하단 우측). ② 단옥재(段玉裁)는 “풀이를 말하여 가르쳐 주는 일은 반드시 그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을 더 넓혀, 무릇 풀어서 알게 되는 것을 훈이라고 말한다.”(說釋而教之, 必順其理, 引伸之, 凡順皆曰訓)고 하였다(상해고적 1981년 간행본, 91쪽 상단 우측). ③ 주준성(朱駿聲)은 말하다(道) 및 전하다(傳)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전고들을 인용하여 제시한 다음에, “가르치다는 뜻이고, 임시 뜻을 빌려 따른다는 의미로 쓰였다.”(教也, 假借爲

로 보았고, 역훈(譯訓)이란 말도 ‘한자의 중국 발음을 한글로’ 표시한 것임을³⁶⁾ 지적하였다(2009: 199쪽).

누리집(<http://sillok.history.go.kr>)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을 검색해 보면, ‘漢訓’은 모두 36건이 나온다. 세종 7건, 세조 7건, 성종 22건이다. 가령, (1) 세종 6년(1424년)에 전하께서 ‘한훈’을 모르시니 마땅히 ‘향훈’을 써야 한다는 대목이라든지, (2) 세종 32년(1450년)에 중국에서 보내온 외교문서를 예전에는 조정에서 늘 ‘향훈’으로만 읽어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먼저 ‘한훈’으로 읽고 난 뒤에서 다시 ‘향훈’으로 읽도록 한 대목이라든지, (3) 성종 18년(1487년)에 문신들을 뽑아 승문원에 소속시켜 먼저 ‘한훈’을 익히도록 하는 대목들의 정확한

順)라고 하였다(중화서국 1984년 간행 『설문 통훈 정성』, 817쪽 하단 우측).

모두 훈(訓)이라는 글자를 구성하는 언(言, 말하다)과 천(川, 물이 흘러 통하다)을 중심으로 해설을 덧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훈(訓)은 “막힌 것을 가르쳐 알려 줌으로써 잘 이해하여 따르게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뜻풀이’가 된다. 이런 뜻풀이는 『훈몽자회』 『천자문』 『유합』에서 훈(訓)을 모두 ‘ㄱㄹ치다’로 풀었던 전통을 잇는 것이다. 이는 모르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말로써 가르쳐 일깨워 주는 전반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만일 모르는 대상이 ‘모습·소리·뜻’(形聲意)으로 엮어진 한자에 해당한다면, 세 가지 구성성분을 각각 모두 다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학습자가 현재 글자 모습(形)을 보고 있다면, 이제 그 글자를 새겨 주어야 한다. 한자 새김의 전통적인 방식은

“[[[뜻풀이] 관형형 어미 부류 또는 ∅] 소리]”

이다. 후핵성(head-final)의 구조를 실현하는 우리말에서는 응당 맨뒤에 오는 요소가 핵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표상에서 핵어는 ‘소리’가 된다. 그렇다면 한자의 구성요소인 ‘모습·소리·뜻’의 차례를 그대로 준수하는 셈이 된다. 비록 ‘한훈, 향훈’에서 훈(訓)이 소리 및 뜻풀이를 모두 아우르더라도, 여기서는 소리만을 더욱 대푯값으로 내세운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학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emic’ 접근이 한 문화를 설명하는 올바른 방식이라면, 한훈 및 향훈이라는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써 주는 편이 옳겠지만, 오늘날 아무도 그런 내포의미를 쉽사리 생각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익숙한 일상용어로 학술어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36) 『동문선』 또는 『성근보집』에 실린 성삼문이 쓴 「(직해) 동자습」 서문에 “훈민정음으로써 한훈(漢訓 중국 발음)을 번역하여(표시하여) 글자를 좇아(글자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어 넣고, 또 우리나라 말을 써서 그 뜻을 풀이하였다.”(以正音譯漢訓, 又用方言, 以解其義)에 있는 표현에서 입증된다. 역훈(譯訓)은 곧 역한훈(譯漢訓)인 것이다.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어 발음을 뜻하는 ‘한훈’도 다시 정음과 속음(최세진 시대에는 금속음까지 추가됨)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더 정밀히 조정해 놓아야 한다. 이는 바른 소리를 의미하는 정음(正音)으로 파악해야 옳고, 흔히 시운(詩韻) 작시(作詩) 또는 독서음(讀書音)으로 불렸던 발음이다.³⁷⁾ 최근의 연구에

37) 시운이나 작시는 시를 짓는 데에 운을 맞추는 일을 뜻하며, 압운(押韻)으로도 불린다. 영기부(甯忌浮 *Ning Jifu* 2009)에서는 명나라 때에 심운(沈韻) 시운(詩韻) 당운(唐韻)이란 말도 쓰였으나, 청나라 때에는 이중에서 시운이란 말이 쓰였다고 한다. 이는 흔히 심음(審音)과 맞선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심음이 오직 운서의 반절을 놓고서 운도를 통해 정확한 발음을 찾는 일(이른바 ‘횡추 직간’[橫推直看] 또는 ‘귀자’[歸字]나 ‘사자’[查字]로 불렸었음)로만 좁게 해석되고, 정확한 현지 입말 발음을 찾아내는 일로 넓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대립어가 될 수 없을 듯하다. 만일 운도를 통하여 반절의 발음만을 찾아 확정하는 일이라면, 그 결과가 곧 압운·시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운과 독서음이란 용어도 중국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성운학을 전공하는 경상대학교 중문과 박추현 교수께 두 용어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시운이 엄격히 더 좁은 범위의 압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고, 좀 복잡하지만 독서음은 포괄적인 범위로 쓰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일부에서는 복잡성을 피해서 이 두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술경 외 역음(曹述敬 *Cáo Shùjìng* 1991: 33쪽) 『음운학 사전』(호남: 호남출판사)에서도 광의와 협의로 정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시운과 독서음을 구분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고, 써나가고자 한다. 이는 우리 쪽에서 글을 읽기 위한 발음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몇 차례 간행한 『예부운략』의 융통성 있는 분권(分卷) 방식을 고려할 적에도 그러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응당 구별해 주어야 하는 ‘상성’ 운목과 ‘거성’ 운목을 한데 합쳐 ‘측성’으로 파악하고, 분권을 달리하기보다는 한데 합쳐 실었던 전통이 있다.

고려 때 판본으로 짐작되는 『배자 예부운략』(상평·하평·상성·거성·입성·옥편)과 조선 초기 판본 『배자 예부운략』(옥편·상평·하평·상성·거성·입성)에서는 상성과 거성이 별개로 분권되어 있다(두 판본 모두 하평 말미와 함께 묵인 옥편의 이름에는 신간[新刊]으로 수식어가 추가되어 있음). 그렇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나온 조선 중후기 판본(가령, 선암서원 판목) 『배자 예부운략』(옥편·상평·하평·상거성·입성)에서는 숫제 「배자 예부운략 상·거성 동음 유집삼(同音類集三)」이란 제목을 붙여 입성을 제외한 ‘측성’의 형식으로 통합해 놓고 있다(여기서는 옥편 이름에 신간 및 신편[新編]이 같이 쓰임).

예부운의 분권 방식에 대한 언급은 아직 거론된 바 없는 듯한데, 필자가 우연히 처음 박추현 교수로부터 들었다. 이 사실을 필자가 갖고 있는 4종의 판본들로부터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깨우쳐 주신 박추현 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런데 책을 읽는 데에 쓰인 독서음은 본디 과거 시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서는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익혀야 하는 독서음이란 용어가 더 선호되는 듯하다.³⁸⁾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널리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문을 제시함이 없이, 이 글과 관련하여 ‘사성 통고도’의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두기로 한다.

사실은 일찍서부터 응당 그런 것으로만 치부되어 자세하고 정확한 기원이 제대로 다뤄진 바 없다. 그렇지만 ‘문연각 사고전서’에 실린 송나라 정도(丁度)의 『예부 윤략』에서 말미에 있는 부록을 보면, 그가 지어 올린 ‘공거 조식’(貢舉條式, 과거 시험 합격자를 뽑는 개별 원칙 및 시행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확장된 36개 조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독서음’의 정체 및 그 효용이 과거시험 답안지의 압운에 대한 채점을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속수 사고전서’ 영인본에 들어 있는 왕문옥(王文旭)의 『신간 윤략』의 서문 바로 뒤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며, 매우 소략하여 1/10에 지나지 않지만, 정도가 펴낸 예부윤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예부 윤략』 판본들에는 ‘공거 조식’이 붙어 있지 않고, 이들을 소개한 글에서도 과거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만일 정도 등이 『광운』을 줄여서 펴낸 『예부 윤략』에 ‘공거 조식’이 부록으로 들어 있었음이 사실이라면, 이는 다음처럼 판단할 수 있다. ‘공거 조식’은 과거 시험의 시행 주체인 정부쪽에서만 참고해도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굳이 부록으로 실어 관각해 낼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법하다. 최근에 『예부 윤략』 및 과거시험에 대한 관련성이 처음 정광(2009:61)에서 『신간 윤략』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렇지만 본디 찬진되었던 ‘공거 조식’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중국어(또는 한자)의 발음도 운명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따로따로 익혀야 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그 중에서 사대부들은 거의 속음이 아닌 정음만을 익혔음). 장위동(2000)에서 정음이나 속음이나 모두 다 ‘당시에 쓰였던 발음’(時音)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런 두 갈래의 발음을 두고 말한 것임을 곧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38) 이흥기(1991, 강길중 뒤집 2010) 『송대 관학교육과 과거』(경상대학교 출판부)에 따르면, 송나라 시대에는 ‘독서인’(讀書人)이란 용어를 특정 집단을 가리키기 위해서 썼으며, 지방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예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특전과 혜택이 주어졌다고 한다. 독서음이란 용어도 혹시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특정집단이 특정 기준음을 따라 익히는 일과 관련되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는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경전을 읽어나가는 데 따라야 할 한자음 정도로 이해하기로 한다. 그런데 ‘정음’이나 ‘속음’은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정음을 독서음으로 쓸 수 있다면, 속음을 가리키기 위하여 독서음의 짝으로서 ‘현지음’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더러 현실음이란 용어도 쓰지만, 이는 ‘시음’(時音 당시 쓰이던 현실음)과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음과 속음을 모두 가리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독서음이란 용어에 짝을 맞춘다면 현지음 정도가 후보가 될 것이다. 가령, 15세기 북경 현지음 등으로 말할 수 있다.

- (1) 신숙주가 『홍무정운 역훈』을 만들면서, 중국어 학습자들이 너무 분량이 커서 열람하기에 불편하므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따로 『홍무정운』에서 소운(小韻) 별로³⁹⁾ 글자만을 뽑고 그 한훈을 향훈으로 옮기고, 속음 및 둘 이상의 뜻으로 쓰이는 음(兩用之音)도⁴⁰⁾ 같이 적어 책으로 엮었다. 그런데 오직 알기 어려운 글자에 한해서만은 간략히 주석을 달았다.⁴¹⁾ 글자 발음

39) 『고금운회 거요』에서는 “×字 母韻”으로 썼다(맨 처음 나오는 글자의 어미 운은 ‘公字 母韻’[공]이며, 다음이 ‘雄字 母韻’[웅]임). 이를 ‘글자의 어미 운’으로 해석하기보다, 잘못 ‘자모의 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흔히 소운(小韻)으로 부르는데, 이는 하나의 운목 아래에다 더 작은 운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다.

40) 이는 둘 이상의 운목에 나타나는 글자이다. 『동국정운』에서도 ‘又×韻’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똑같은 처리를 하고 있다. 『사성통해』 서문에서는 “한 글자가 여러 발음으로 난다.”(一字數音, 같은 운목에서든지 다른 운목에서든지)고 했다.

강신항(2000)에는 자세하게 최세진 서문이 번역되어 있어 뒷사람들에게 도움이 아주 크다. 그런데 의심스런 대목이 몇 군데 있다. 140쪽 “무릇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간여된 것은”(凡于咨奏; 간여할 干)과 143쪽 “지금 사성통고 한 책과 또 이미 중국에 가서 묻고 들어 두었던 것을 갖고서, 옛 운서에 증거하여 난해어를 추려서 [사성통해 편찬의 중간단계로서] ‘발음 풀이’를 지었다.”(今將通攷一書, 亦已轉聞于朝, 證據古韻, 抄著‘音解’; 가질 將은 두 개의 항목을 모두 목적어로 지님)로 고쳐질 필요가 있다.

또한 142쪽에 ‘미상’으로 언급한 훈해(訓解)에 대해서는, 안병희(2009: 199쪽 각주 8과 211쪽)에서 발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최세진의 서문에는 ① 발음 표시를 가리키기 위하여 ‘음해’(音解)와 ‘훈해’(訓解)가 쓰였고, ② 발음 및 뜻풀이를 둘 모두 가리키기 위하여 ‘음·의’(音義)와 ‘음·석’(音釋)이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146쪽에 미상으로 나뉜 ‘진시’(晉豕)는, 자하(子夏)가 진으로 가서 위나라를 지날 때 사기(史記)를 읽던 사람이 “진나라 군대가 기해에 황하를 건넜다.”(晉師已亥涉河)의 기해라는 간지를 ‘삼시’(三豕)로 잘못 읽은 일을 말한다. 『여씨 춘추』에 나오며, 책을 베끼거나 출간할 때에 비슷한 글자 모습 때문에 생겨나는 오류를 의미한다.

『동문선』(『성근보집』권2에도 들어 있음)에 실려 있는 성삼문이 쓴 「(직해) 동자습」 서문도 강신항(2003b: 243쪽)에 번역되어 있다. 거기에도 다시 ‘음·의’(音義)가 나온다. 그렇지만 구두와 번역에 오류가 있다(민족문화추진회 번역 『동문선』Ⅶ 409쪽, 756쪽도 오류이다). 응당 “동지중추부사 신 김하와 경창부윤 신 이변에게 그 의심나는 곳을 지적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동자습」과 「역훈평화」 두 책의 발음과 뜻이 밝고 분명하기가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다.”(…證其疑, 而二書之音義, 昭晰若指諸掌)로 고쳐져야 옳다. 황윤석 「자치록」(영인 672쪽)에서의 구두점도 이와 같고, 두 가지 책 이름 둘 사이에다 구두를 찍어 놓았다. 안병희(2009: 404쪽)에서는 「역훈평화」를 고시(古詩)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였다.

41) ‘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有難通者)은 『사성통고』 범례의 7항(모음의 발음 방식에서 변해야 하는 것들)처럼 훈민정음의 발음을 중국 발음에 적용하는 사례들로 판단되며, “해당되는 중성의 첫글자 아래에다 이런 내용을 논하고 풀이하였다”(同中聲首字之下, 論釋之).

과 한자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만 보면, 결과적으로 『몽고자운』과⁴²⁾ 『동국정운』의 모습에 따라 엮은 셈이 된다.⁴³⁾

- (2) 세종이 정한 ‘사성통고’(또는 이재의 표현을 따르면 ‘통고 사성도’)를 책의 맨 앞쪽에다 실었고, 책의 맨 뒤에는 ‘범례’를 마련하여 이를 지남(指南, 원칙)으로 삼아 깨우치도록 하였다.
- (3) 그 책의 이름을 세종이 ‘사성통고’라고 지어 주었다.
- (4) 이는 세종이 즐겨 찾았던 『고금운회 거요』에서⁴⁴⁾ 보여 준 모형을 참고한 것이다. 『고금운회 거요』에서는⁴⁵⁾ 형식이 다음의 순서로 되어 있다.
‘서문 → 고금운회 거요 범례 → 예부운략 7음 36모 통고 → 본문’

그렇지만 간략하게 신숙주가 펴낸 『사성통고』에서는 이전에 임금이 ‘사성통고’(또는 이재가 언급하는 ‘통고 사성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임금을 높이어 책의 맨 앞(頭面)에다 싣고, 자신이 마련한 범례는,⁴⁶⁾ 임금과 나란히 순서를 이

42) 1956년 일본 관서대학에서 사진을 영인하여 펴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정광 교수가 『몽고자운 연구』의 부록 형식으로 깨끗한 전체 사진을 실어 놓고 있다.

43) 조선조 말기에 펴낸 『경서 정음』(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 소장)도 비슷한 목적과 의도를 지녔던 듯하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송기중(1988)을 참고할 수 있다. 여러 경전들을 놓고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을 위하여 한자 한 글자 아래에다 중국의 정음·속음이 나란히 병기되어 있으며, 순전히 중국어 학습용 발음만 들어 있다. 따라서 정작 우리가 경서(가령 노나라『춘추』의 인명과 지명 따위)를 읽어 갈 때에 어떤 음으로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44) 세종은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여 줄가리를 잡은 ‘대전’(大全) 류를 특히 좋아하였던 듯하다. 사서대전·오경대전·성리대전(영락[永樂] 삼대전으로 불림)들을 펴낸 다거나, 또는 노나라 역사에 대한 주석서들(3전+호안국 전)을 모두 하나로 모아 『사전 춘추』를 펴낸 사실이 그러하며(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진 파일로 후쇄본을 내려받을 수 있음), 또한 1434년(세종 16년) 복간된 『고금운회 거요』 발문에서도 ‘실로 운서의 대전’(實韻書之大全)이라고 신인손(辛引孫)이 적고 있다. 『자치통감 강목』의 경우, 지금 전해지는 것이 1436년(세종 18년) 임금이 직접 훈(訓, 발음)과 의(義, 뜻)를 정한 ‘사정전(思政殿 훈의)’이다. 본문의 큰 글자는 진양대군 유[瑄, 세조]가 썼는데, 세조는 문무를 겸한 임금인 듯하다.

45) 영인되어 나온 명 가정본 및 청 광서본에 따른다.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조선 판본에는 오직 일부 서문과 통고만이 들어 있고 범례가 빠져 있다. 그러나 이재가 비싼 값으로 구입하였던 효종조 내사본 『고금운회 거요』는 좀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판본에는 없던 ‘사성 통고도’까지 덧붙여 놓았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46) 안병희(2002: 13)에서 신숙주가 “「사성편고」(四聲便攷)를 편찬하여 『홍무정운 역훈』 앞에 수록하였다고 한다.”고 썼다(출처는 밝혀져 있지 않음). 과문하지만 「사성편고」에 대해서는 아마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논의인 듯하다. 그러나 「사성편고」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말뜻으로만 짐작해 본다면, 통고(通攷 두루 살펴봄)나 편

을 수 없다는 뜻으로, 본문의 맨 뒤로 돌려 부록으로 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세종이 정해 놓은 「사성 통고도」

통고(通攷, 두루 살펴본다)라는 이름은 『고금운회 거요』에서 따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곳의 ‘예부운략 통고’에서는 가지런히 소운(小韻)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초성 계열에 따라 나열해 놓고 있어서, 글자의 발음을 쉽게 일람할 수 있다. 비슷한 운목들 사이에서는 다시 같은 소운이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뒤섞여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든다. 그렇더라도 이는 『광운』에서 소운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제시법이다.

이재가 수록해 놓은 「사성 통고도」의 제목 아래에 달린 두 번째 주석에는, “곧, 우리나라 세종 대왕이 정한 「사성통고」인데, 『역흥무정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운회』에도 들어가 있다.”(即本朝世宗大王所定四聲通攷, 附入譯洪武正韻者也, 亦入韻會)라고 적혀 있다.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가 수록한 「사성 통고도」는 『역흥무정운』에서 가져온 것이며, 『운회』에도 동일한 도표를 있음을 전제로 한다. 더군다나 후자의 운서에는 ‘譯’이란 말을 붙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국 판본이 변형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첫 번째 주석에서는 “『자휘』에 실린 「황도」와 「직도」를 써서 기준으로 삼아 부류를 나누었고, 또 ‘훈민정음’을 써서 소리에 따라 배열하였다.”(用字彙橫直二圖, 校準類分, 又用訓民正音, 隨聲列之)라고 써어 있다.

만일 연대상으로 두 번째 주석이 원래 모습의 기본값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첫 번째 주석 내용은 그 기본값을 놓고서 이재가 추가한 내용을 밝혀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사성 통고도」에서 『자휘』와 관련된 내용을 지우고, 훈민정음의 소리값을 지워 버릴 수 있다. 그렇다

고(便攷 곧 살펴봄)는 부사 ‘두루, 곧’만 다를 뿐 「평상거입 사성을 이내 살펴볼 수 있다(살펴본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기능을 지닌다. 이런 바탕 위에서 추론을 하여, 만일 「사성편고」가 있었다면, 세종이 정한 「통고 사성도」와 서로 기능이 중첩되므로, 이 때문에 「사성편고」는 삭제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면 본디 기본값으로서 세종이 정해 놓은 「통고 사성도」를 역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편의상 이재가 표시해 놓은 훈민정음 소리값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추가된 『자취』의 내용만을 삭제하여 「사성 통고도」를 보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⁴⁷⁾

47) 단, 여기서 동그라미 ○는 우연히 한자에 해당 소리값에 해당 글자가 없는 것을 뜻하며, 각 한자의 소리값을 표기한 내용은 이재의 생각을 반영해 준다. 종성 받침을 ‘ㄴ口’으로 표시하는 것은 마치 현대 북경 발음에서 ‘er’이 덧붙어서 받침 n이 탈락하는 일(儿化 현상)을 연상시킨다. 가령 음식점을 가리키는 낱말 반관(飯館)은 홍콩 등의 남쪽 방언에서는 [fànguǎn]으로 발음되지만, 북경쪽에서는 er이 덧붙고 앞의 n을 탈락시켜 [fànguǎr]로 나온다. 이재가 표시한 겹받침이 또한 입술을 닫는(閉口) m 때문에, 바로 앞의 n은 혹 기저형에서는 표시될 수 있겠지만, 표면 음성형에서는 탈락되어야 할 것이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
ㅇ	1 公궁	孔궁	貢궁	穀구
	2 弓궁	拱궁	供궁	菊구
	3 雄황	○	○	○
	4 江강	講강	絳강	覺강
	5 ○	○	○	腳강
	6 ○	○	○	雙강
	7 ○	○	○	爵강
ㅣ	8 羈계	己계	寄계	吉기
	9 ○	○	季계	○
	10 惟위	唯위	○	○
	11 賞즈	紫즈	恣즈	櫛즈
	12 嬌귀	癸귀	○	○
	13 規귀	軌귀	媿귀	○
	14 麾휘	毀휘	諱휘	○
	15 ○	○	恚휘	○
	16 居규	舉규	據규	○
	17 孤구	古구	顧구	○
	18 雞계	啓계	計계	○
	19 佳개	○	懈개	○
	20 ○	解해	○	○
	21 乖괘	掛괘	卦괘	○
	22 該개	改개	蓋개	○
ㄴ	23 鈞균	梱균	攢균	橘규
	24 巾긴	緊긴	靳긴	○
	25 筠윤	隕윤	運윤	聿유
	26 欣힌	謹긴	焮힌	○
	27 昆균	袞균	睞균	○
	28 根근	懇근	艮근	○
	29 韃견	捲견	建견	計겨
	30 干건	筭견	盱건	葛겨
	31 ○	○	○	怛다
	32 官권	管권	貫권	括귀
	33 閒간	簡간	諫간	戛가
	34 關관	撰관	慣관	刮과
	35 堅견	繭견	見견	結겨
	36 涓권	畎권	睞권	厥귀
	37 ○	卷권	變권	玦귀
	38 賢현	峴현	現현	訖히
	39 卷귀	○	○	○
ㄷ	40 驍교	皎교	矯교	○
	41 驕교	矯교	叫교	○
	42 交교	絞교	敎교	○
	43 高교	杲교	誥교	○
	44 歌거	訶거	箇거	○
	45 戈귀	果귀	過귀	○
	46 獮괘	○	○	○
	47 嘉가	賈가	駕가	○
	48 瓜과	寡과	跨과	○
	49 牙야	雅야	訝야	○
	50 嗟저	且저	借저	○
	51 加가	他씨	藉씨	○
	52 岡강	吭강	鋼강	各강
	53 光광	廣광	誼광	郭과
	54 黃황	晃황	況황	○
	55 莊장	○	壯장	○
	56 ○	甄창	○	○
	57 京경	景경	敬경	○
	58 行행	杏행	行행	黑회
ㅇ	59 兄형	○	○	洫회
	60 經경	酄경	勁경	○
	61 揅컨	肯컨	忼컨	格괴
	62 ○	○	○	額의
	63 ○	○	○	克크
	64 ○	礦깅	○	國귀
	65 ○	○	○	號귀
	66 ○	頃깅	○	○
ㄷ	67 鳩구	九구	救구	○
	68 穆구	糾구	驕구	○
	69 鈎구	考구	溝구	○
	70 衰훈	揅훈	復훈	○
ㅁ	71 浮훈	婦훈	戊무	○
	72 金긴	錦긴	禁긴	○
	73 簪존	○	譚존	○
	74 甘간	感간	紺간	○
	75 兼견	檢견	劍견	○
	76 箱견	歉견	歉견	○
	77 嫌현	○	○	○
	78 杻현	險현	○	○
	79 監간	減간	鑑간	○

이 도표에 있는 각 항목은 이른바 소운(小韻)으로 불리는 글자들이다. 비록 원래 순서가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위 도표로 제시된 순서도 또한 조금 달라졌지만, 모두 『고금운회 거요』(이하에서는 『운회』로 줄임)에서는

“이상의 글자들은 ×글자의 어미 운에 속한다.”(已上, 屬×字 母韻)⁴⁸⁾

로 표시된 글자들이며, 또한 책 머리에 붙은 「예부운략 칠음 36자모 통고」에 그대로 나열되어 있다.⁴⁹⁾

만일 이재의 언급대로 이 도표가 『역홍무정운』과 『운회』에 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두 책이 동일한 발음을 지녔다고 여겼음을 의미한다. 송림의 『홍무정운』 범례 제1조에 『운회』와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 즉, 모황(毛晃)·모거정(毛居正)의 『증수 호주 예부운략』과 황공소(黃公紹)의 『운회』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중원의 아성(雅聲)으로써 중복되는 운들을 통합하거나 나누어서 마침내 76운으로 줄였다고 하였다.⁵⁰⁾

김무림(1999: 150쪽)을 보면, ‘지(支)·지(紙)·치(寘)’의 소운을 한글로 옮기면서, 특히 [으]와 [이] 사이의 핵모음을 선택할 적에 『역훈』에서는 『홍무정

48) 지각상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언제나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찍어져 있다. 즉, 음영이 반전된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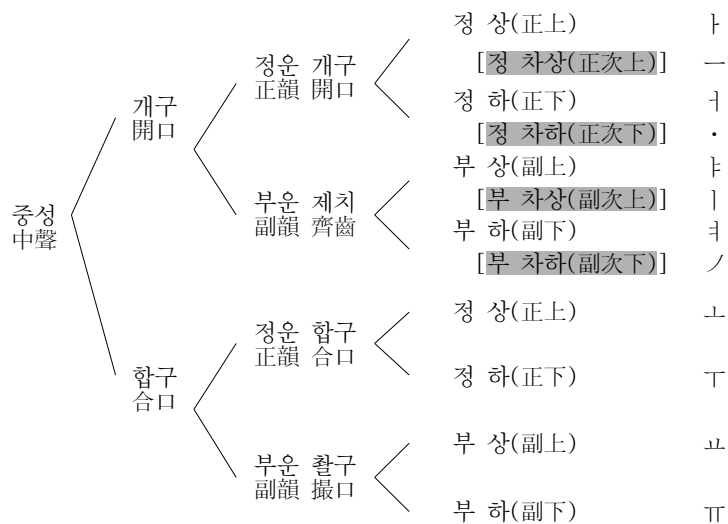
49) 비록 딸림 글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소운이 세 개 누락되어 있다. 평성에서 소운 泓의 글자로서 ‘泓(1자)’, 소운 歆의 글자로서 ‘歆(2자)’, 소운 緘의 글자로서 ‘緘(12자)’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수정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위 도표에서 평성 51 소운 加는 迦로 고쳐져야 옳고, 39 소운의 발음은 ‘퀸’으로 찍어져야 한다. 또한 41 소운 歌로부터 51 소운 迦까지는 운미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야 옳는데, 이재의 도표에서는 이를 구별해 놓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재가 보았던 원본의 차착인지, 전사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는 더 천착되어야 할 과제이다. 소운이 세 개씩이나 누락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50) 영기부(甯忌浮 *Ning Jifu* 2003: 2쪽 이하)에서도 ‘사고전서 체요’를 인용하면서 『고금운회 거요』와의 관련성을 다음처럼 지적하였다. “1398년(무인년)에 임금이 조칙을 내려 『운회 정정』(定正, 올바른 것을 결정해 놓음)을 간행하였다. 이때 『홍무정운』이 간행 반포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임금이 그 글자 뜻과 발음이 능히 모두 아직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 한림원에 거둬 교정을 보도록 명령하였다. 학사 유삼오(劉三吾)가 말쑥을 올리기를 「전 태상 박사 손오여(孫吾與)가 펴낸 운서는 본디 송나라 유학자 황공소의 『고금운회』에 바탕을 두었는데, 무릇 글자의 발음은 반드시 36자모로 근원으로 하여, 음운이 모두 하나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책을 올리자 임금이 살펴보고 좋게 여겼고, 『운회 정정』으로 이름을 지어 주고, 이에 간행하도록 명령하였다.”(戊寅, 詔刊韻會定正, 時洪武正韻頒行已久, 上以其字義音切, 未能盡當, 命翰林院, 重加校正, 學士劉三吾言, 「前太常博士孫吾與, 所編韻書, 本宋儒黃公紹古今韻會, 凡字切必祖三十六母, 音韻歸一」, 因其書進, 上覽而善之, 賜名「韻會定正」, 命刊行焉)

운』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전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표면형”을 선택했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이런 지적이 옳다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운회』의 소운들이 특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의 부록에 실어 놓은 이재의 도표에서도 현지음을 정확히 표시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휘』에 들어 있는 「운법 횡도」와 「운법 직도」를 이용하여 심음(審音 정확한 발음을 찾아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용어들을 다수 그대로 쓰고 있다. 가령, 입술을 닫아 붙이는 폐구호는 받침 ‘口’을 지닌 음절을 가리키며, 입술을 열어 벌리는 계순(啓脣)과 대립되는 용어이지만, 계순은 범칭으로 쓰인 듯하다. 그렇지만 정영지(2004)에 따르면 ‘강(岡)·경(局)·강(江)’운들에 쓰인 혼호(混呼)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일치된 견해가 없다고 하며, 심소희(2010b: 110쪽)를 보면 또한 교치호(咬齒呼)나 설향상호(舌向上呼) 따위의 용어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한다.

특이하게 이재는 『이수신편』영인본 하권 1853쪽에서 자신이 쓰는 용어를 다음처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모음을 네 단계의 도출 과정으로 표시해 놓았다. 먼저 개구와 합구의

가지 아래에다 각각 정운과 부운으로 나누고, 다시 정 상하/부 상하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정 차상하/부 차상하로 나누었다. 이런 단계별 도출 과정 자체는 오랜 역학적 질서가 송나라 시대에 와서 만개하였던 상수학 체계로부터 나온 것이다.⁵¹⁾ 그렇지만 세 단계의 도출 과정이 이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인용해 가져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는 전자쪽일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중성 개구 부운 제치에서 그림자가 깔린 부차하 ‘ノ’은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던 기호인데, 과연 어떤 발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⁵²⁾ 뿐만 아니라, 앞의 도표에서 그림자가 깔린 ‘정 차상하/부 차상하’의 기호들은 「사성 통고도」에 이용되지 않았다(부록을 보기 바람). 부록의 도표에서는 밑줄을 그어 놓은 표목들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의 기호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상위의 단계에 있는 기호만을 표시해 놓았다. 궁21, 상21, 치24, 치26, 상28, 치57, 치58, 치60, 상61, 상62, 치63, 궁65, 우66, 치67, 치68, 상69, 상70, 상71, 치72, 상73들이 그러하다. 이런 사항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더 적용하지 않은 채 보류해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록에 실어둔 도표에서 이제가 표시하고 있는 발음들이 중국의 어느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다룰 수 있다. 필자로서는 아직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두 가지 견해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제가 『이수 신편』 제12권에 있는 「경세 사상 체용지수 도」에서 ‘바른 운모’(正聲)와 ‘바른 성모’(正音)에 한글로 발음도 표시하고 주석도 달아 둔 바 있다. 심소희(2010a, b)에서는 이를 검토하면서 17세기 중국 현실음 체계로 보았다. 한편, 현재의 「황극 경세 성음 창화도」를 다루면서, 강신항(1991, 2003a에 재수록됨)에서는 11세기 송나라 서울 개봉의 한자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51) 소옹(1011~1077)의 『황극 경세서』가 두 종류 판본을 놓고 번역되어 있어서 도움이 크다. 노용균 뒤침(2002)와 윤상철 뒤침(2002)를 보기 바란다.

52) 일단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를 가리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그 후보가 활구호 ㅄ를 위한 기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의 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가능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다음 의문이 제기된다. 이재가 신숙주가 펴낸 『사성통고』를 직접 보았을까? 그리고 이재가 『역홍무정운』(또는 홍무정운 역훈)을 실제 접하였을까? 여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재난고 색인집』으로 찾아보면, ‘사성통고’는 3번 나오고, ‘홍무정운’은 21번 나오며, ‘운회’는 11번 나온다. ‘사성통고’는 모두 인용의 형식으로만 나온다. 따라서 신숙주가 펴낸 『사성통고』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미 『사성통해』가 『사성통고』의 역할뿐만 아니라, ‘금속음’까지도 싣고 있어서, 후자의 필요성이 전적으로 전자에 의해서 대치되었으므로, 후자가 뒷 세상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홍무정운』은 1549년(가정 28년) 간행된 중국 판본의 복각본을 역시 김용겸(金用謙)으로부터 빌려 보았다.⁵³⁾ 영의정까지 지낸 김용겸의 증조부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중국어 강관(漢語講官)을 지내었기 때문에, 또한 중국어 현지 발음을 알 수 있는 책들을 분명히 그 집안에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왕실도서관 장서각 아카이브(<http://yoksa.aks.ac.kr>)의 누리집에서 ‘역홍무정

53) 『이재난고』제3권 607쪽(1771년 음력 3월 27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용겸에게 편지를 보내어 『홍무정운』 전질 5책을 빌려 주도록 청하였다. 이는 홍계희가 중국 판본(형왕이 간행한 재간본을 의미함)을 이용하여 앞 해에 운각(교서관)에서 번각하여, 1본을 임금님께 올린 것이다.”(送書瓠泉金丈, 請借洪武正韻全帙五冊, 卽洪台啓喜, 用古唐本, 以前年 自芸閣翻刻, 一本進御者也)

또 김용겸으로부터 『홍무정운』을 곧 받았던 듯한데, 이를 뒤인 제3권 610쪽(1771년 3월 29일) 일기에 『홍무정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기 내용은 다시 제9권 403쪽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그 대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계희가 1752년 경연 자리에서 번각하여 펴 내도록 건의하였고, 무려 18년을 작업하여 1770년에 공사가 끝났다(1770년 홍계희 서문). 상평·하평은 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글자가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눈 것이다. 송렴이 운(韻)을 고를 균(均)으로 말한 것은 발음이 같으면 뜻도 통해서 쓰기 때문이다.” 등등.

『이재난고』 1771년 1월 21일 기록에는, 조정에 입시한 시종 이상의 여러 신하들에게 각각 『홍무정운』을 1건씩 내려 주었다고 적어 놓았다. 김용겸이 이재에게 빌려준 것은 아마 이 판본일 것이다. 그렇지만 『역홍무정운』은 복각된 기록들이 없으므로, 김용겸이 이것도 함께 빌려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787년의 일기를 보면, 효종 때(1659년) 내사된 『운회』 12책을 다른 책과 더불어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기사가 적혀 있다.

운'을 검색하면 『이재난고』에서 오직 두 건만이 뜨며, ‘홍무정운역훈’을 검색하면 현대 주석만이 뜬다. ‘홍무정운’이란 검색어로는 구축된 자료들로부터 모두 73건이 뜬다. 앞의 두 건은 1769년(기축년) 4월 24일과 1770년(경인년) 윤5월 8일의 일기이다.⁵⁴⁾ 둘 모두 그가 직접 『역홍무정운』을 보았는지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치록』에 실린 자료가 나오려면, 이재가 『홍무정운』뿐만 아니라 또한 『역홍무정운』도 보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전제가 만족되어야만, 이재가 스스로 주석을 달아 『역홍무정운』에 들어가 있고, 『운회』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주석에 근거하면, 『역홍무정운』에는 안병희(2009: 213쪽)에서 추정하였듯이 「사성통고」 내지 「통고사성도」가 들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이재가 『자치록』에 옮겨 기록해 둔 내용이라면, 문제는 왜 변형을 가해 놓았는지에 있다. 즉, 명시적으로 ‘운법 횡도·직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부류로 나눠 놓았다고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재는 누가 이 도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즉, 이 도표의 ‘독자층’은 과연 누구였을까? 『자치록』 자체가 비록 자신을 위한 비망록의 형태를 띠다고 하더라도(외현적 모습), 일관되게 편집되어 있고 주석이 추가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었을 것(내재적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질문에 설득력 있는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재의 유고들을 다 훑어 봐야 하겠지만, 방대한 업적을 놓고 몇 해만에 이를 이뤄내기란 필자의 능력으로 바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서들을 읽으면서, 필자는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이재가 자신이 터득한 상수학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최영성 2009: 101쪽), 상수학을 공부하려는 뒷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엮두에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경에 가는 경우에 중국 현지발음의

54) 기축년 기사는 “근일의 『사성통해』라는 것은 곧 세종조 때에 『홍무정운』과 『사성통고』를 역한[발음 표시를 해 놓은] 바의 남아 있는 발음이다. 운운”(近日 四聲通解, 是卽世宗朝 所譯 洪武正韻 及 四聲通攷之遺音)이다. 경인년 기사는 “옛날 우리 세종이 새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홍무정운』을 역하였는데[발음을 표시해 놓았는데], 그 일로써 신라와 고려 때 답답하고 막힌 이두의 폐단을 혁파하였으니, 가히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운운”(昔我世宗, 新製訓民正音, 以譯洪武正韻, 以革羅麗吏讀, 窒礙之弊, 可謂盛矣)

모습들을 개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던 것일 수 있다.

IV. 이른바 ‘독서음’의 정체

여기서는 이른바 ‘독서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송나라 정도(丁度, 990~1053)가 편찬하여 올린 ‘공거 조식’(貢舉條式)은⁵⁵⁾ 1194년 전후에 이르도록 계속 확장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모두 36개 조항이 나열되어 있고, 각 조항마다 언제 정해졌는지에 대하여, 중국 임금의 조칙이 나온 해와 그 조식이 확정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밝혀 놓았다. 맨 앞에 실린 글(前文)은 ‘공거 조식’ 편찬하여 올리게 된 배경을 서술해 주고 있다.⁵⁶⁾ 수·당을 거쳐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중국의 과거시험은, 몇 가지 부문

55) 『한어 대사전』 제10권 83쪽의 ‘공거’(貢舉)를 보면, 원래 의미는 사람을 추천하여 뽑는다는 뜻이었지만, 당나라 시대에서부터 ‘과거 시험’을 가리키는 말로 고정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56) 대만의 상무인서관에서 간행한 문연각 사고전서 ‘경서 소학류’(제237책) 300쪽 이하에 들어 있다. 사고전서는 CD로도 이용할 수 있고, 주요 대학 도서관의 전산망을 통해서 대만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사고전서 내용에는 아직 구두점도 찍혀 있지 않다. 또한 전문 사전류나 최세진의 업적 그리고 ‘이문’(吏文) 관련 서적들을 이용하여 찾아보다라도, 행정문서들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필자의 부실하고 모자란 능력으로는 잘 알 수 없다. 비록 장님의 더듬이이겠지만, 맨 앞에 써 놓은 전문(前文)은 대략 다음처럼 번역될 수 있다.

“송나라 정도가 찬함, 행재 국자감에서 1134년(소흥 4년) 3월 18일 임금의 조칙을 따릅니다. 절문(앞의 내용을 줄임), 중서문하성 상서께서 관련 사무로 내려보낸 공문이 예부에 도착하였습니다. 국자감에서 옛 판본의 『운략』(예부에서 광운을 줄여 놓은 책)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후에 걸쳐 실어 놓아 과거 응시자(舉人, 지방에서 추천되어 서울에서 과거를 치르려는 사람)들이 두루 아는 시험 시행 격식들을 비교하여 조사하고, 과거시험 격식 및 삼가 쓰지 말아야 할 황제 묘호들을 조사하여 공문으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에 끊어졌던 시·부를 다시 시행하여 진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과거시험 격식 중에서 깎아 고치거나 중단할 내용들을 옛날 판본들에 의거하여 책으로 찍어내도록 공문을 올려 알렸습니다.

저희가 따로 어긋나는 데 이를까 염려스러워, 국자감에서 행해지는 조식을 비취 보면서 이에 따라 바르게 고치고 인쇄하여 간행하는 일을 시행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3월 18일 내린 임금의 뜻을 받들고, 아울러 국자

으로 나뉘어 시행되어 오다가, 송나라 때에는 오직 경전의 뜻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과거시험만이 있었다(이른바 ‘명경과’[明經科 경전 내용을 속속들이 밝히는 분과]로 불렸음). 그렇지만 이는 오직 응시자가 경전 주석에 대하여 잘 암기하는지 여부만을 검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전처럼 응시자가 품은 뜻을 마음껏 펴 보일 수 있는 시·부 짓기도 과거시험의 부문으로 함께 되살려 놓자는 논의들이 많았다.⁵⁷⁾

드디어 1090년 7월 10일 송나라 조정에서 공거법(貢舉法)을 고쳐 반포하였는데, 경전의 뜻을 묻는 것 이외에 시부에 대한 과장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朝廷 近頒貢舉法, 經義之外, 添詩賦一場). 이에 따라 시험을 주관하는 예부에서는 운을 맞

감에서 공문으로 올린 내용에 따라, 앞의 내용대로 공문과 같이 칙령을 받들고 봉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과거시험의 현행조식을 갖춰 적어 놓았으니, 다음 조식의 항목들을 지시하여 시행하십시오.”(貢舉條式. 宋丁度撰. 行在國子監, 准紹興四年三月十八日勅. 節文, 中書門下省尙書, 省送禮部狀, 國子監申「勘會 舊本韻略, 前後所載, 舉人通知; 考校 格式 并 廟諱之類. 緣自 復行詩賦後來, 續有申「請刪改若止, 據舊本雕印」. 竊慮, 別致牴牾, 欲乞「從本監, 參照見行條式, 改正雕印, 施行」. 伏候指揮, 三月十八日奉聖旨, 並依國子監所申, 奉勅 如右牒到奉行. 今具見行條式, 指揮下項.)

앞의 인용에서 연대를 보면, 정도가 죽은 뒤 81년 지난 시점의 임금 조칙을 신고 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옛 판본의 『운략』들을 조사하여 그곳에 실린 공거 조식들을 비교 검토한 뒤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해 주도록 하였다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운(紀昀) 등이 쓴 제요(提要)에서는 경우(景祐) 연간(1034~1037년)에 찬진되었다고 언급하였다(뒤의 각주 59에 번역된 기운의 제요를 보기 바람). 따라서 본문에 실린 조항들 중에서 일부는 정도가 찬진한 것이고, 일부는 그 뒤에 계속 확장 보충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5 조항은 1205년(개희 원년)에 시행된 내용이다. 따라서 정광(2009: 61쪽)에서 언급한 왕문옥 『신간 운략』의 ‘성조반강 공거 삼시정식’(聖朝頒降貢舉三試程式)도, 원래 정도가 펴낸 『예부 운략』의 전통을 그대로 잇는 형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연각 사고전서에 경부 소학에 들어 있는 모황 부자가 늘이고 고쳐 놓은 『예부 운략』에는 공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 57) 음서 등의 여러 제도를 통해 관리를 등용시키던 당나라와는 달리, 송나라에서는 엄격히 과거시험만으로 관리를 등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조의 과거는 송나라를 모범삼아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문과에서 생원과 진사로 구분되는 것도 그러하지만, 조선의 과거제도는 3년의 식년마다 설행되는 정식 시험을 통해 관료를 등용하기보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별시를 통해 뽑는 일이 식년시보다 더욱 많아지게 되어 드디어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 버린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 문풍이 자못 진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실력이 있는 인재 황윤석이나 유희같은 이들이 문과에 합격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이런 풍토와 무관치 않다.

출 때에 허용 범위를 정해 놓아야 했는데, 특히 1090년 태학박사 손악(孫謬) 등의 상소 내용을 많이 참작하면서 시운을 맞추는 허용 범위를 결정해 놓았다.

‘공거 조식’의 제2항은 뜻이 같지만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 29개 글자를 규정하였다. 제3항은 글자 뜻이 같지 않지만 경전에서 많이 오용되는 글자로 4개를 지적해 놓았다. 경전과 주석에 있는 글자들로서 과거 응시자(舉人, 지방에서 추천되어 서울에서 과거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쓰고 있지만 『예부 윤략』에는 수록하지 못한 글자 10개를 적어 놓았다. 제5항에서는 피휘하는 글자로 잘못 전해져 와서 피휘하지 말아야 할 글자 2개를 언급해 놓았다. 제6항도 피휘와 관련된 글자들을 거론하였다.⁵⁸⁾ 제7항은 이전의 조정에서 시·부를 합격시키는 데 특정한 격식이 있었지만, 글자의 평측을 쓰는 것이 같지 않아서 그 당시 현재 감히 쓸 수 없는 글자와 관계되는 내용을 다루었다.⁵⁹⁾ 제8항은

58) 왕문옥이 펴낸 『신간 윤략』의 정식에서는 서문 바로 다음에 ‘성조반강 공거 삼시 정식’(聖朝頒降貢舉三試程式, 앞 임금 때에 반포되어 실시되고 있는 세 차례 과거시험의 법식)이 있는데, 이는 피휘 글자들부터 나열되어 있다.

59) 기운(紀昀) 등이 쓴 제요(提要)를 보면, 복건성(또는 閩) 출신 과거시험 응시자가 써 낸 시험 답안지의 압운을 기롱하는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송나라 진종 때 과거시험의 부 제목이 ‘하늘 덕이 맑고 밝다’였다. 어느 복건성 출신의 응시자가 다음처럼 썼다.

「하늘의 길은 어떠하던가(天道如何),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아만지네(仰之彌高)」

마침 회시의 채점관이 또한 복건성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올바른 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건성 발음을 써서 압운이 되었다고 합격시켰다. 이는 송나라 초기의 과거시험에서 압운하는 것이 오히려 느슨하여 법식이 없었음을 뜻한다. 경우 연간(1034~1037년) 이후로부터 조칙을 내려 이 책을 펴내고 나서, 비로소 과거시험의 법식을 『예부 윤략』에 붙여 놓게 되었다.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그 법식을 고치지 않았다.”(眞宗朝試「天德清明」賦, 有閩士破題云, 「天道如何, 仰之彌高」, 會試官亦閩人, 遂中選. 是宋初, 程試用韻, 尚漫無章程, 自景祐以後, 勅撰此書, 始著爲令式, 迄南宋之末 不改)

북경대학 중국어언문학회 어언학교연실 엮고, 왕복당(王福堂 Wáng Fútáng 2003) 고침『한어 방언 자회』(북경: 어문출판사)의 26쪽과 189쪽에 보면 복건성의 발음도 조사되어 올라 있다. 일단 그곳의 특수기호를 빼고서 옮기면, 각각 何 [xɔ]와 高 [kɔ]이다. 이 발음이 과연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 발음만을 놓고 보면 똑같이 [ɔ]로 나와 압운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한자음으로는 ‘ㅏ, ㅑ’로 읽히므로 서로 압운이 되지 않는다.

조선조 지식인들은 우리 한자음 발음이 고려에 귀화한 쌍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누리집(<http://sillok.history.go.kr>)에서 그 사례들을 찾아보면 두 건이 나온다. 1421년(세종 3년) 윤1월 3일에 정인지가 중국의 사신

1090년 응시자들의 답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해 놓지 못한 것 및 착오인 것들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내용이다.

제11항은 과거시험의 출제 방식을 담고 있다. 가령 부(賦)에서는 “주나라에서 같은 희(姬)씨 성을 가진 제후들을 주변 나라에 임명하여 왕실을 굳건하게 하였다.”(周以宗強)는 운을 써서 차례대로 360글자 이상을 적어 내도록 하였다. 제18항에는 ‘소흥 연간에 거듭 수정하여 두루 통용되는 공거 법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과거시험 답안지에⁶⁰⁾ 범해서는 안 될 것들을 여섯 장에 걸쳐

예겸에게 다음처럼 말하였다. “작은 우리나라는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올바른 한자 발음을 묻고자 하나 가히 배울 스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음을 처음 고려 광종 때에 과거제도를 건의한 쌍기에게서 배웠는데, 쌍기 또한 복건성 사람입니다.”(小邦遠在海外, 欲質正音, 無師可學, 本國之音, 初學於雙冀學士, 冀亦福建州人也) 또 1439년(세종 21년) 9월 18일 올린 사간원에서 상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이가 어려서 아직 혀가 굳어지지 않은 때에 모두 복건성의 발음[音訓]을 배우고, 그 나이가 많아져서 혀의 뿌리가 이미 굳어진 뒤에 복건의 발음과 같아지려고 하여 승문원 사역원에 들어오지만 처음과 끝이 배움이 달라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我國之人, 當其年幼, 舌本未強之時, 皆學福建省音訓, 迨其年長, 舌本既強之後, 欲同華語, 入於承文司譯院, 初終異習, 成效爲難)

안병호(1984: 32쪽)『조선 한자음 체계의 연구』(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에서는 위 주장을 부정하고, 쌍기가 오기 전에 이미 한자음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왕복당 고침(王福堂 Wáng Fútáng 2003)에서 복건성 한자 발음이 올라 있어 쉽게 우리나라 한자 발음이 같은지 여부를 대조해 볼 수 있다. 피상적 인상만으로는 반드시 두 발음들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응당 음운 대응규칙이 세워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하겠는데, 필자의 능력으로 대답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 황익(黃翊 Huáng Yì 2007)『오문(澳門) 어언 연구』(상해: 상무인서관), 진지평 외(陳支平 Chén Zhīpíng 2008)『민남 방언』(북경: 인민출판사), 마중기(馬重奇 Mǎ Chóngqì 2008)『민태 민남 방언 운서』(북경: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 추곡유행(秋谷裕行 Akitani Hiroyuki 2010)『민동구 복녕편 사현시 방언음운 연구』(북경: 인민출판사) 등이 나와 있어, 조선 지식인들의 당시 생각이 옳은지 여부를 음운 대응규칙을 수립해 봄으로써 검증할 수 있을 듯하다. 만일 대응규칙 수립이 어렵다면, 고려말부터 들어와 강력히 영향을 준 성리학 때문에 주회를 높이면서 함께 주회의 고향인 복건(또는 閩) 땅도 우리나라 한자음의 기원인 것처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60) ‘試券’은『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라 있는 [사:권]이 아니라, 사이시옷을 받쳐 [싯권](試券)으로 발음해 왔다. 흔히 ‘券’이란 한자어는 한 낱말을 이루는 접사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낱말에서도 사이시옷이 늘 들어간다. 맞춤법에서는 처음 ‘통일안’이 마련될 적에 단어와 문장(또는 구)을 서로 구별해 주어야 하는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맞춤법으로 확정된 현재에도 이를 그대로 인습하고 있을 뿐이다. 단어를 만드는 질서와 문장(또는 구)를 만드는 질서는 서로 달라야 된다.

장황하게 적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시운을 쓸 적에 그 형식도 정해 놓았는데, 제25항을 보면 “...시의 매 구절의 제2자가 제3자 제4자와 더불어 모두 다 평성을 쓰거나(측평평평), 모두 다 측성을 쓴다면(평측측측) 평측을 잃어 버리게 되는데, 제3자에도 동일한 평측을 써 놓으면 이들 구 사이를 벌려 놓고(間之) 높낮이 가락으로 이어 주지 못한다.”는 자세한 금지 규정도 들어 있다.⁶¹⁾

제34항과 제35항은 매우 흥미롭다. 먼저 제35항은 1205년 거문고 현(弦)을 실 사(糸)를 써 넣은 현(絃)을 써도 과거시험 답안지에서 통용 가능한 글자로서 인정하기로 결정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제34항은 1172년 과거시험 답안지에 써서 있던 두 가지 사례

산 이름 기[岐 평성]와 갈림길 기[岐 평성],
이삭이 수그러져 굽을 위[委, 委曲 상성]와 말단/여줄가리 위[委, 委源 거성]

에 대한 통용 여부의 결정을 내리고, 성도(成都) 및 광서(廣西) 두 지방의 과거시험의 합격을 예부에서 승인했거나 취소했던 내용을 다룬다.⁶²⁾ 그 결정 과정 및 시행 명령들이 아주 자세히 1천 6백자 넘게 써어져 있고, 『예부운략』이

영어에서는 핵의 순서가 달라진다. 우리말에서는 소위 ‘비통사적’ 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비통사적 합성이란 말은 곧 통사 질서를 따르지 않음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낱말다운 낱말이 되려면 통사 질서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핑커(1999, 김한영 뒤집 2009: 588쪽, 603쪽, 610쪽, 635쪽, 665쪽)『단어와 규칙』(사이언스북스)에 따르면, 비규칙적인 낱말과 규칙적인 낱말들이 처리되고 저장되는 두뇌 부서가 서로 다르다. 만일 두뇌 단층 촬영술에 입각한 그런 관찰이 사실이라면, 마치 손가락의 지문처럼 자연언어는 그런 차이를 서로 다른 질서로 구현해 놓고 있는 것이다(‘구적 낱말 : 완벽한 낱말’의 대립임). 자세한 논의는 졸저(2010a: 88쪽, 98쪽)『언어의 심층과 언어교육』(도서출판 경진) 및 졸저(2010b: 20쪽, 178쪽)『국어 통사·의미론의 몇 측면: 논항구조 접근』(도서출판 경진)을 보기 바란다.

61) 왕력(1979, 송용준 뒤집 2005)『중국 시문학』제2권에서 ‘고체시’의 율격을 배울 수 있다.

62) 송나라 때의 과거는 세 번 시험(三試)을 치르는데 되는데, 지방에서 먼저 합격자를 뽑고, 중앙에 있는 예부에서 시험을 치른 뒤, 임금 앞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각각 해시(解試) 성시(省試) 전시(殿試)로 불렸다. 송대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이흥기(1991, 강길중 뒤집 2010)『송대 관학교육과 과거』(경상대학교 출판부)에서 개관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과거제도와 관련된 낱말들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해액(解額) 발해(發解) 득해(得解) 해송(解送) 상공(常貢) 초고관(初考官) 복고관(覆考官) 주고관(主考官) 따위이다.

란 운서에 새롭게 추가 사항을 더해 놓게 되는 중요한 조항이다.⁶³⁾

첫 번째 대목의 결론은, 문왕이 살던 기산(岐山)의 기(岐, 산이름 기)와 갈림길 기(歧, 歧路)는 본디 합쳐 통용하여도 괜찮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우 연간(1086년~1093년)에 『순자』 치사(致士)로부터 가져온 「널리 많이 익힌다고 하여 다 스

63) 문연각 사고전서의 『예부운략』에는 평성·상성·거성으로 실현되어 세 군데에 실려 있다. ① 평성 지[支]운(237-146 하단 오른쪽)에는 다음처럼 써어 있다. “평온하고 아름다움은 겉음겉이가 찬찬하고 느낌이다. 또 반절이 於詭, 於僞이며, 상성 지[紙]운과 거성 치[寘]운에도 보인다.”(委委, 行委曲也. 又於詭, 於僞二切. 見紙, 寘二韻)

② 상성 지[紙]운(237-204 상단 왼쪽)에 “반절은 於詭이다. 굽어 있다는 뜻으로 쫓다. 이는 벼 곡식 따위의 이삭이 밀으로 드리워 굽은 모습에서 뜻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글자가 벼 이삭에서 뜻을 따왔다. 또 於危, 於僞 반절로도 읽는다. 평성 지[支]운과 거성 치[寘]운에도 들어 있다.”(於詭切. 釋云委曲也. 取其禾穀垂穗貌, 故字从禾. 又於危, 於僞二切. 見支, 寘二韻)

③ 거성 치[寘]운(237-204 하단 왼쪽)에 “가득 쌓여 있다고 풀이되는데, 너·쌀·섞·꼴들을 다 포괄하여 일컫는 이름이다. 『주례』 천관(天官)에 재부는 너레를 관장하고, 가득 쌓아 둔다고 하였다. 『예기』 학기에는 혹 근원이라고 하고, 혹 말단이라고도 하였다. 두 가지 뜻이 모두 반절이 於僞이다. 이 사실은 새로 『예부운략』에 첨가하였는데, 거성 치[寘]운으로 쓴다. 또 다른 반절 於危, 於詭로도 읽는다. 평성 지[支]운과 상성 지[紙]운 두 개의 운도 보기 바란다.”(釋云委積, 牢米薪芻之總名. 周禮宰夫, 掌牢禮, 委積. 學記, 或原也, 或委也. 並皆於僞反. 新制添入, 此韻用. 又於危, 於詭二切. 見支, 紙二韻)

필자가 갖고 있는 『예부운략』의 네 종류 판본에서 이를 점검해 보았다. 오직 평성과 상성에만 들어 있고, 거성에서는 찾을 수 없다. 결국 ‘공거조식’ 제34항이 반영되지 않은 『예부운략』 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 ‘대덕 경자 매개서원’ 판본에서는 평성 지[支]운에 “委□佗佗, 美也”로 나와 있다. 상성 지[紙]운에 “| 曲也, 亦 | 積, 又屬也, 棄也, 隨也, 任也. 於詭切. 玉 |, 分 |, 曹 |, 重 |”로 설명되어 있다. 거성 치[寘]운에는 없다.

(2) 또 상성과 거성을 분권한 조선 중기 『예부운략』에는 앞의 (1)처럼 평성 지[支]운에 설명이 동일하고(누락된 글자가 없이 委委佗佗 네 글자가 다 새겨져 있음), 상성 지[紙]운에도 간략체 속(屬)과 옛글자 기(弃)를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이다. 거성 치[寘]운에는 보이지 않는다.

(3) 상성과 거성이 분권된 다른 판본의 『예부운략』에는 평성 지[支]운에 “雍容 | |, 曲也, 美也”로 앞의 두 판본과는 조금 다른 풀이 내용이 써어 있다. 그렇지만 상성 지[紙]운에 앞과 동일하게 “| 曲也, 亦 | 積, 又屬也, 棄也, 隨也, 任也. 於詭切. 玉 |, 分 |, 曹 |, 重 |”로 나와 있으며, 간략체 속(屬)과 옛글자 기(弃)가 (2)와 동일하게 되어 며, 거성 치[寘]운에는 나와 있지 않다.

(4) 상성과 거성을 하나로 합쳐 판각한 이른바 1615년 ‘선암서원’과 동종의 『예부운략』에는 평성 지[支]운에 “| | 佗佗, 美也”로 나와 있고, 상성 지[紙]운은 앞의 (3)(4)와 동일하며, 거성 치[寘]운에는 없다.

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博習不與師說)을 다룬 부(賦)에서, 1등으로 합격한 심회소(沈回小)의 과거시험 답안지에 있는 압운이 문제가 되었다.

“懼惑多歧”

(두렵고 의심스러워 갈래가 많이 나뉜다, 또는 갈래가 많아 두렵고 의혹스럽다)

에서 뫼 산(山)을 써야 옳을지 멧을 지(止)를 써야 옳을지 여부였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없이 서로 같은 글자로 인정을 받아 합격이 취소되지 않았다.⁶⁴⁾

두 번째 내용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예부에서 서로 다른 판정을 내린 일을 시정하는 조치이다. 성도(成都)에서 1204년 제9인으로 합격한 장간(張簡)이 써낸 과거시험 답안지의 제4구에는 원위(源委, 근본과 말단)에서 ‘여줄가리위’(委 말단)의 거성 성조를, ‘이삭 수그러져 굽을 위’(委曲)의 상성 성조로 보아, 상성 ‘씨 이’(以)와 동일하게 압운을 하였다. 그렇지만 합격된 답안지가 공개되자 압운에 잘못이 있다고 여론이 들끓었다. 채점관도 또한 잘못을 인정하였고, 곧 합격자 명단에서 장간은 내쫓김을 당하였다.

이미 원우 연간(1086년~1093년)에 손악(孫謬)이 예기 학기(學記)⁶⁵⁾ 및 주관 뇌례(牢禮)를 인용하여⁶⁶⁾ 원위(源委)의 위(委)가 거성 치(寘)운에 속함을 밝혀 놓았다. 그렇지만 당시 이렇게 바뀐 내용이 아직 『예부 윤략』에 새롭게 들어가 있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뒤늦게 1204년에 와서야 그런 조치를 단행하여, 『예부윤략』을 고쳐 새기는 일을 시행하였다.

성도 지방의 과거시험과는 정반대의 판정이 이미 광서(廣西) 지방에서 이미 있

64)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예부윤략』에도 두 글자가 모두 동일한 글자로 올라 있다. 그렇지만 다음에 다루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에 전해 오는 판본들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65) 『예기』의 학기(學記) 편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다. “삼왕이 물에 제사 지내는 일에는, 황하를 먼저 하고 바다를 뒤로 하였다. 황하는 혹 근원이 되고 바다는 혹 말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근본을 힘쓴다고 말한다.”(三王之祭川也, 皆先河後海, 或源也, 或委也, 此之謂務本)

66) 문연각 사고전서 제90책 『주례 주소』 60쪽 상단 왼쪽에 다음처럼 나온다. “무릇 조회하여 알현하고자 회동할 적에는 빈객들이 뇌례의 법도로써 하므로(세 가지 회생인 ‘소·양·돼지’를 바치는 것을 1회라고 함), 그 뇌례를 관장하여 뇌례에 쓸 물건들을 마련해(쌓아) 둔다.”(凡朝覲會同, 賓客以牢禮之灋, 掌其牢禮, 委積 …)

었다. 성도의 과거시험보다 3년 앞서 치러진 1201년의 광서 지방 과거시험이다. 거기에서는 성스런 임금의 덕화가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제를 내세워

“덕화가 두루 퍼져 흐르므로, 가까운 데에서 말미암아 시작되네”
(德化宣流, 由近而始)

로써 부를 짓도록 하였었다. 거기서 1등을 한 유송석(劉崇錫)의 과거시험 답안지에서 시(始 상성)에 압운을 하여, 제2운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다스리는 길은 여러 갈래이니, 진실로 앞서고 뒤서고의 차이만 있네. 임금님 한 몸은 이 세상의 모범이므로 마땅히 근본과 말단을 밝혀 주어야 하네.” (治道多端, 固有先後, 人主一身, 當明源委)

이 답안지가 공개되자, 곧 ‘여줄가리 위’(委)는 거성이므로 상성과 압운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책임자 유시(劉蓍)는 원위(源委, 근본과 말단)라는 낱말이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상성으로 쓰고 있다고 억지를 부려, 그대로 1등으로 합격시켰다. 그러자 그곳의 교관이었던 고위(顧緯)가 중앙 정부에 상소하여 합격을 취소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우연히 당시 예부에서 고찰한 『예부운략』에는, 인용 출처가 우연히 주관 뇌례(牢禮)에서 인용한 위적(委積, 쌓아두다)만이 있었고, 예기 학기(學記)에 나오는 원위(源委, 근본과 말단)에 대한 인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으므로, 상성으로도 허용된다고 보아, 앞의 경우와는 달리 합격자 명단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대조적인 사례를 들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주관해야 하는 예부에서 한 번은 합격시켜 주고, 한 번을 불합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였고,⁶⁷⁾ 지금 이후로 원위(源委 본말)라는 통합된 낱말을 『예기』의 풀이대로

67) 문연각 사고전서 329쪽 하단에 다음처럼 써어 있다. “이제 이 한 운으로만 보면 광서 및 성도에서 이미 두 번 오류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를 따져 바로 고쳐 놓지 않는다면, 아마 이로 인하여 서로 간에 인용 사례로 답습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일이 끊이지 않아 잘못됨이 있을 것이며, 후학들에게 실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서에서 실시된 앞 번의 과거시험에는 이미 사람들이 두루 잘못 쓰는 바를 허용하여, 합격자 명단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 한 경우는 허

쓴다면 거성 치[寔]운에서만 압운이 되도록 하고, 상성 지[紙]운에서는 압운이 틀린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모든 과거 응시생들에게 통지하여 뒷날 과거 시험장에서 의혹됨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소략하게 이와 같은 조항들을 살펴보면, 수·당·송을 거치면서 확립되어 온 과거시험 제도에서⁶⁸⁾ 우연히 유교 경전들을 위주로 하여 과거시험 과목들이 정해졌으므로, 주나라와 춘추 시대에 씌어진 옛날 문헌들을 응시생 및 채점관들이 공통적으로 읽고 그 내용을 응용할 필요에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운서’라는 존재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지방에서 보존되던 발음 변이체와는 무관하게, 특정 학자 집단들에 의해서 경전들 속에 있는 발음들이 추정되고 고정되어 여러 왕조를 걸쳐가면서 독서인들 사이에서 수용되었다.⁶⁹⁾ 이렇게 수용된 발음이 당시 현지 발음과의 차이가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과거시험에서 압운을 평가할 엄격한 기준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음이란 결국 중국 본토인들 사이에서도 다소간 필수적으로 암기에 의존해야 하는

용되고, 한 경우는 내쫓긴다면, 먼 곳의 선비들이 반드시 또한 불평하는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운운”(今此一韻，廣西成都，已兩次謬誤，若不辨正，誠恐自此遁相，承襲援例，無已有誤，後學實爲未便，但廣西前舉，已許作泛用，免行駁放，今若一予一奪，卽遠方士子，必且懷疑不平 …))

68) 과거(科擧)라는 말은 분과 별로 사람을 뽑는다는 뜻이다. 가령, 조선조에서는 문과와 무과가 있었고, 그 아래 다시 여러 하위 분과의 시험들이 있었다.

69)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대만에서도 주희가 뜻과 발음을 정해 놓은 ‘집주’가 지금도 정전(正典)으로 대접받고 있고(이흥기 지음, 강길중 뒤침 2010: 27쪽), 북경대학에서 『13경 주소』들에 표점을 찍어 방대한 내용을 발간한 사실만 보더라도, 송나라 시대에 정해진 독서음의 영향력은 성운학자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듯하다.

왕력(王力 Wáng Lì 1982)『용충 병조재 문집』제3책(북경: 중화서국)에 실린 “주희 반절고”를 보면, 현대 중국 성운학계에서 왜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지 알 수 있다(옛날 음도 제대로 몰랐고, 통시대가 변화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고 비난받음). 왕력(1985, 권택룡 뒤침 1997)『한어 음운사』(대일)에서는 입성도 긴 입성(長入)과 짧은 입성(短入)이 있었고, 거성(去聲)조차 그가 설정하는 중고 시기에 상성 및 입성으로부터 발전했다는 논의를 읽을 수 있다. 만일 왕력의 주장이 옳다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전수해 온 체계는 그가 상정하는 중고음의 어느 시기에 들어와 정착한 셈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한자음이 하나의 체계로만 고정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체계들이 혼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인위적’인 경전의 발음이었던 것이며, 시운을 맞출 때에도 그런 발음이 그대로 응용되었던 것이다.

V. ‘기본모음’에 대한 의문: 기본자소와의 불일치

마지막으로, 필자가 국어사나 국어학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잘못된 것으로 여겨 온 대목을 주마간산으로 언급하면서, 주제 넘게 발표한다고 약속한 뒤에 계속 쌓이던 고민과 책임을 훌훌 벗어 버리고자 한다. 훈민정음이란 글자를 처음 만들면서 글자의 기본과 도출된 글자를 구분한 바 있다. 모음에서도 세 가지 기본글자가 있다. ‘·, ㅡ, ㅣ’(각각 ‘천, 지, 인’에⁷⁰⁾ 배속시킴)이다. 이들을 가리켜 삼재(三才⁷¹⁾ 세 가지 기본재료)라고도 하는데, 우연하게 당시

70) ‘천, 지, 인’은 배경과 초점 또는 무대와 배우로 재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천지는 배경 또는 무대가 되고, 그 배경이나 무대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동일한 형이상학을 다루면서도 성리학에서는 성을 먼저 내세웠는데, 이는 생명체에서 사람의 품성을 대표로 내세워 다루는 것이다. 그 뒤에 배경이나 환경에 해당되는 사물이나 우주의 이치를 다룬다. 성리학의 순서대로 삼재를 내세우면 ‘인, 지, 천’이나 ‘인, 천, 지’로 바뀌 줄 수도 있다. ‘천, 지, 인’이라는 삼분 개념은 더 이상 신비에 싸여서도 안 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온당치 않다. 옹당 오늘날 인간의 인지를 다루는 방식으로 재해석되거나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어학사에서의 기술 방식이나 해석법은 반드시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말 자음은 모든 언어에 일반적인 두 가닥의 상관을 유지하다가 우연히 어느 시기에 세 가닥의 상관속(ㄱ, ㄴ, ㅋ)을 발전시켰지만, 모음은 여전히 두 가닥의 상관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점에서만 살필 때 세 가닥의 기본글자는 오직 글자 모양만을 그려내기 위한 방편으로 좁혀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71) 설문(說文) 학자들은 이 글자를 ‘才(재) → 𠂇(첼) → 之(지) → 出(출) → 木’(목)이라는 푸나무가 자라나는 일련의 유기적 과정으로 설명해 왔다. 머물 두(逗, ‘ㅡ’을 땅 속에 머뭇으로 풀었음)는 땅을 가리키고, 뚫을 곤(丨)은 초목의 줄기를 가리킨다. 才는 초목들이 처음 땅위로 순을 뻗어나온 것을 가리킨다. 서개(徐鍇)는 위의 머물 두(一, 逗)를 초목의 순 또는 줄기로, 아래의 뚫힐 별(丿)을 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거꾸로 단옥재(段玉裁)와 주준성(朱駿聲)은 각각 위의 것을 땅으로 아래 것을 순 또는 줄기로 보았다. 단옥재는 재주 재(才)를 늘어난 뜻으로 보았다. 곧, ‘처음’(初, 纔, 載, 哉)이란 말에서 뜻이 확대되어 “사람이 태어나는 초기에는 착한 것이 모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재능을 재(才)라고 말한다.”(生人之初, 而萬善畢具焉, 故人之能曰才)고 하였다. 삼재(三才)의 才에는 아무

삼분 철학의⁷²⁾ 세계관과 일치하여 자못 ‘신비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더해 준다. 삼재란 말은 축자적으로 단지 세 가지 재료(材料) 또는 재질(材質)을 뜻할 뿐이다. 이 세 가지 모습들은 대전(對轉) 관계를 통해 상관쌍(correlates)을 이룬다.⁷³⁾ 이른바 향훈(鄉訓 우리말 한자 발음)에서 이들이 모두 동일한 운에 속해

런 신비감도 없다. 단지 그 작대기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치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앨리스의 열쇠’마냥 착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 72) 동일하게 기호학을 추구하였던 소쉬르와 피어스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관찰된다. 소쉬르는 기본적으로 이분 대립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듯하다. 반면에, 피어스는 이분 대립을 흑백논리의 전조로 보고, 언제나 다분 대립체계를 지향하였는데, 그 구현방식은 삼분 대립이었다. 가령 피어스(1894) “기호란 무엇인가?”(인디애나 대학교의 피어스 편집 프로젝트 엮음 1998『피어스 필독 논문선(The Essential Peirce)』제2권을 보면 55세 때의 글임)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관계를 icon(본뜻 관계), index(불뚝 관계), symbol(관습적 관계)로 보았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사고를 모의하는 튜링(Turing)의 연산체계(computation)가 우연히 전산방식을 이용하므로, 설사 아무리 복잡한 다분 대립이라도 이분 대립을 계층화하여 구현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세종 당시에 유행하였던 삼분 사고법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분 사고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 비록 ‘하늘·땅·사람’이 교묘하게 세 가닥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결국 ‘배경과 초점’ 또는 ‘무대와 배우’라는 이분 대립을 보여 줄 뿐이다(앞의 각주를 보기 바람). 더욱이 성리학 체계는 순서상 품성이 더 전면으로 부각됨으로써 초점이 먼저 제시된 것이다. ‘하늘·땅’을 물성의 이치를 구현하는 배경에 해당하며, 품성으로 대표되는 생명계(그 중에서 사람이 대푯값으로 표상됨)는 초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자유의지나 지향성 정도의 막연한 포괄개념으로 다루어지던 인간의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에서는, 현재 적어도 두 가지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유형화(patterning) 및 계층화(encapsulation)이다(줄고 2011a “언어의 산출 및 이해 과정” 한국 언어학회 발표논문집에 있는 ‘특강 원고’ 또는 2011b “르펠트의 언어 산출 모형에서 몇 가지 문제”, 『언어』 36권 4호를 참고하기 바람). 여기서 유형화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경과 초점을 부여해 놓는 일을 뜻한다.

신비감을 깔아 놓은(또는 당시 사람들이 신비롭게 받아들였던) 삼재(三才, 세 가지 기본 재료)는 글자 모양새를 만들어 내기 위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도 사람을 길게 ‘丨’ 세웠기 때문에, 당시에 파스와 글자의 형상에서만 본다면 체계상의 예외인 ‘좌성-우성-중성’의 구성체로 귀결되었다(가령 ‘김’의 경우처럼). 그렇지만 오늘날 글자 자체의 시각적 변별성을 고려한다면, 이 예외가 더욱 중요성을 띤다. 가령, 필자의 이름자 중에 ‘홍’은 ‘홍, 홍’과 종종 식연히 변별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굳이 파스와 문자의 질서를 따라 ‘중성’에 집착하여 가운데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만일 ‘좌성-우성’의 모습으로 ‘홍’처럼 썼더라면, 시각적 변별성이 더욱 보장되었을 것이다.

- 73) 가령, 우리말 자음의 상관쌍은 ‘ㄱ, ㄲ, ㅋ’처럼 표시될 수 있다. 운서에서도 이런 상관쌍의 대립이 흔히 ‘대전’이란 말로 표현된다.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낱말

로부터 뜻을 넓혀 나갈 경우에 발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지만 일정한 경로를 따르게 된다. 가령, ‘각’이라는 발음의 기본글자가 있다면, 의미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통되지만 차이가 나는 발음을 확보해야 한다. 첫 번째 후보가 종성을 바꾸는 것인데, 그 짝인 ‘강’이 있다. 다시 다른 뜻으로 더 넓혀 가기 위해서는 핵모음을 중심으로 중모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중모음은 중국사람들이 개음(个音, 끼어 있는 소리)이라고 부르거나, 운두(韻頭)로도 부르는데, 복잡한 중국음운사는 개음의 변동 역사를 보여 준다. 왕력(1985, 권택룡 뒤집 1997)『한어 어음사』(대일)에서 핵모음의 차이로 간주된 등(等)을 차치해 둔다면, 이제 호(呼)를 이용해 상관쌍을 펼쳐 나갈 수 있다. 반모음 ‘y’(체치호)가 들어가서 [각]으로 나올 수 있고, 운미(韻尾)로 취급될 수 있는 하향 반모음으로 실현되어 [가]로 나올 수도 있다(비록 글자를 두 개로 썼지만 중모음 1음절이며, 이하 동일함). 또는 반모음 ‘w’(합구호)가 들어가서 [과, 과-]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활구호로 불리는 ‘ü’로 실현되어(아래턱이 조금 전진하면서 동시에 두 입술이 동그랗게 앞으로 뻗쳐 나옴) [규]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초성을 상관쌍으로 바꿀 수도 있다. ‘ㄱ’과 가까운 [각]나 [학]이나 또는 후음 계열[학] 따위가 선택될 수도 있다. 이런 경로 속에서 특정 집단에 의해 특정한 선택이 이뤄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수용되는 것이다. 이런 대전 현상의 일부가 이미 1336년 유사명(劉士明)『경사정음 절운지남』속에 ‘경사 동정자음’으로 207항목이 실려 있고, 거의 비슷한 203개 항목이 1517년 최세진『사성통해』의 부록 속에 ‘동정자음’(동사와 명사 간의 품사 전환에 따른 발음 변이)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리말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교착어인 우리말에서는 뚜렷하게 내부감각 동사와 외부대상 지각동사가 형태상으로 대립을 보인다. “출다:차갑다, 덥다:뜨겁다, 기쁘다:즐겁다, 슬프다:서럽다” 따위이다. 어휘 의미표상에서는 전자를 {경험주+느끼다+느낌 내용}으로 해체시켜 나타내고(의미자질을 표시하는 기호로 임시 { }를 쓰기로 함), 후자는 여기에 다시 외부 자극물이 덧붙여진다. {{내부 감각동사}+외부 자극물}이다. 그렇지만 이는 중심축이 화자인 나(경험주)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묘사하거나 기술한다면, 다시 교착어 질서를 따라 ‘어하다’를 붙이게 된다. 즉, ‘추위하다:차거위하다’처럼 된다. 이는 위의 의미표상에서 묘사 동사(대상 기술 동사)의 특성이 더 붙어가는 것이다. 즉, {{내부/외부 감각동사}+외부의 주체/대상 묘사}이다. 만일 사태가 복합적이어서 두 주체 사이에 일련의 매개사건 관계로 일어난다면(“출게 하다/차갑게 하다” 따위), 이제는 낱말의 층위를 벗어나서 개별 사건들의 연결을 다루는 통사의 층위로 넘어가 버린다. 국어학계에서는 두 층위가 머릿속 처리 방식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크게 진작되지 않는 듯하다. 낱말을 다루려면 공동체의 공동체현이 전제되므로 절차지식기억(procedural memory)과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이 상정되어야 하지만, 통사를 다루려면 절차지식기억과 구체적 사건기억(episodic memory)이 관여되어야 한다.

중국어에서 대전(對轉)의 개념이 우리말에서는 교착어 질서를 통해 구현되는 형태소들의 차이로 나타난다. 영어의 경우에는 악센트를 이용하거나(명사는 앞쪽에, 동사는 뒤쪽에 악센트가 놓임), 아니면 우리말처럼 접사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것들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휘 확장의 원리를 개별 언어마다

있다. 즉, 지(支)·미(微) 운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유독 ‘이’ 모음에는 운서의 발음 특성상 대부분의 자음들이 결합한다. 따라서 세종 시대에 이와 결합하는 글자들을 채집하여, 발음을 보여 주는 표목자 또는 용례자로 삼았음은, 이미 일련의 이동림(1972, 1975, 1993)에서 분명히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참고 문헌의 반열에조차 올라가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본글자들이 글자 모양새를 잡아 주기 위한 재료에 지나

특수하게 적용시키는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레빈·뢰퍼포어-호뵈(1999)에서는

“행위동사 → 상태동사 → 완성동사 → 완수동사”

의 확장을 체계적으로 다룬 바 있다. 만일 이런 어휘 확장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한자를 다룰 경우에 본의[本義]·인신의[引伸義]라는 용어를 청나라 훈고학자들이 써 왔음), 한자사전에서 언제나 다수의 발음과 뜻풀이가 들어 있다고 하여 하냥없이 툭툭대기만 하랴!

전문학계에서는 이를 어휘의미의 확장으로 부른다. 졸저(2010)『국어 통사·의미론의 몇 측면: 논항구조 접근』(도서출판 경진) 제9장을 보기 바란다. 최근에 논항구조나 사건구조 또는 어휘 상이나 연결이론들에 대하여 좋은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나왔는데, 통사론과 어휘론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는 발판을 마련해 주며(비유적으로 형태론을 해일·카이저[2002]에서는 ‘얼어붙은 통사’[frozen syntax]라고 불렀는데, 자유로운 기본 통사 및 얼어붙어 꼼짝 못하는 제약 통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학은 구조주의 언어학자 해뤼스가 애초 생각했던 대로 오직 미시언어학과 거시언어학만 있는 셈이다), 그 일부는 발간 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 해일·카이저(Hale and Keyser 2002)『논항구조 이론에 대한 서설』(MIT Press)
- 드보이즈·컴프·애슈비 엮음(Du Bois, Kumpf, and Ashby 2003)『바람직한 논항구조: 기능 설계로서의 문법』(John Benjamins)
- 로드슈타인(Rothstein 2004)『사건들의 구조화 열개: 어휘 상에 대한 의미론 연구』(Blackwell)
- 롤랜드·바타차랴야·스빠싸스 엮음(Reuland, Bhattacharya, and Spathas)『논항구조』(John Benjamins)
- 바워먼·브라운 엮음(Bowerman and Brown 2008)『논항구조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들』(Lawrence Erlbaum)
- 레빈·뢰퍼포어-호뵈(Levin and Rappaport-Hovav 2010)『논항 실현방식』(Cambridge University Press)
- 랜들(Randall 2010)『연결 짓기: 논항구조의 기하학』(Springer)
- 뢰퍼포어-호뵈·도론·씨첸 엮음(Rappaport-Hovav, Doron, and Sichel 2010)『어휘의미·통사·사건구조』(Oxford University Press)

지 않는 것이지, 결코 모든 인간이 발성하는 기본모음자가 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⁷⁴⁾ 이런 점이 제대로 지적되거나 아직 채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인간의 기

74) 세종 당시에도 ‘속유’들이 지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릴 필요가 있었고, 마침내 성공하였다. 오늘날에도 세종에 대해 허깨비를 세워 놓고서 기성 세대들이 지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사고실험’을 해 보기로 한다. 어느 곳에서 오늘날 음운론 지식을 이용하여, 세종 당시 20대 후반의 소장 학자들이 썼던 방식으로 모음 글자들을 만들어 주도록 ‘문자 제작 일거리’를 발주하였고(project를 일거리로 부르기로 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그 일을 도맡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먼저 모음의 숫자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편의상 9개 모음이 있다고 상정해 두기로 한다. 오늘날 우리는 언어학 상식으로 모음이 개구도(3단)와 혀의 위치(3위)에 따라 변동됨을 알고 있다(일단 원순 및 평순 속성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자질로 간주해 둔다). 그러므로 이들을 서로 교차시켜 도출 단계가 없이 한꺼번에 9가지 글자를 지정하거나 표시해 줄 수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우리는 외부관점 공간 좌표계를 이용해야 함을 알고 있다. 공간 좌표계는 데카르트 이후에 대수학으로 표시됨을 깨우쳤다(기하학과 대수학이 공통된 공리계를 지님). 좌표계의 매우 소박한 방식은 정사각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3단과 3위의 격자를 만들고, 그 교차지점에다 아라비아 숫자를 집어 넣고 각자 완전히 독립시키거나, 또는 공통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하여 9개의 점이나 하이픈을 찍어 놓는 것이다(각필의 발상법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임). 만일 정사각형이 음절을 도안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정사각형을 막대기로 간주할 수 있다. 막대기를 세우고서 하이픈을 이용하여 좌우 상하 네 가지 측면으로 서로 변별되는 자리를 지정하여 이를 나타내어 줄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오직 이분적인 방식으로써 앞의 9개 위치를 단계별로 차례차례 도출해 줄 수도 있다(이것이 역학을 발전시킨 상수학이 채택한 논리 전개 방식이며,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짐). 먼저 개구도의 위치를 하이픈을 이용하여 상하로 표시해 준다. 다시 중간 개구도를 어느 하이픈을 이용하든지 두점의 하이픈 =을 표시해 줄 수 있다. 곧바로 혀의 위치를 도입해야 하므로, 9가지 가능한 지점을 변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편의상 임시로 아라비아 숫자 1, 2, 3을 부여해 둘 수 있다. 논리학에서 쓰는 부호 \oplus 를 염두에 두면, 아라비아 숫자 1이 붙은 것은 위의 반원만을 쓰기로 하고(즉 원호 아래 다시 선들이 있음), 아라비아 숫자 3이 붙은 것은 아랫반원만을 쓰고(즉 원호 위에 다시 선들이 있음), 아라비아 숫자 2가 붙은 것은 아무런 원호도 붙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 위에서 이제 혀의 위치를 표시해 나갈 차례이다. 이는 서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하이픈을 상하로 세워 놓고, 좌우 방향의 하이픈과 결합시켜 놓을 수 있다. 후보들은 +, -, \vdash , \dashv 따위가 된다. 어떤 도안을 채택하든지 간에, 전설 후설의 위치를 먼저 상하 하이픈으로 표시해 주고 나서, 다시 전설의 변이 모습으로 정하든 후설의 변이 모습으로 정하든 간에, 다시 상하 하이픈을 변별적이 되도록 표시해 줄 수 있다. 어떤 도안의 결과가 과연 우아하고 마음에 드는지는 또다른 차원의 변수가 된다. 이 사고실험에서는 선만을 이용했는데, 우아하게

본 소리에 대한 통찰은, 최근 급부상하는 생리언어학(Biolinguistics) 분야를 이미 1970년대에서부터 선구적으로 꾸준히 다뤄온 리버먼(Lieberman) 교수의 업적에서 찾을 수 있다.⁷⁵⁾ 그의 관심은 진화의 역사상 15만년 전에 어떻게 해서 네안데르탈 인과 크로마뇽 인이 현격히 달라질 수 있었는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즉, ‘성대의 하강’에 대해서이다. 포유류들이 포효할 때에 후두강(목구멍 윗부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성대가 하강하지만, 울음이 끝나면 곧장 올라붙고 만다. 그렇지만 인간은 1살 전후하여 성대가 하강하여 그대로 고정된다. 곧, 숨길과 밥길이 공통된 통로를 한데 쓰게 되면서부터, 오직 인간만이 ‘사레’ 드는 경험을 한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성대가 하강하여 고정됨으로써 위대한 분절음(모음과 자음으로 나뉘는 소리)이 만들어지는 것이다.⁷⁶⁾

동그라미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점과 선과 동그라미를 모두 이용하여 9개 모음을 표시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단계별 도출 방식이 곧 기본모음이 9개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 · — |’를 기본모음으로 간주하는 것을 현대에 생겨난 ‘잘못된 신화’로 여긴다.

이런 사고실험을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기 위하여 우정 해 보는 우스개 소리나 잠꼬대만 결코 아니다. 굳이 세종 당시의 글자 도안만이, 그리고 ‘천·지·인’의 도안만이 가장 성스럽고 신비스러우며 유일한 표시 방식으로 관념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론의 상식이 15세기 당시의 지식에 비해 많으면 많았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뿐만 아니라 몇 세기 전에는 상상도 해 보지 못했던 지식 폭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역추적하여(진화 심리학자 핑커 1997에서는 이런 일을 ‘역설계’[reverse-engineering]로 부름), 창조적으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글자 도안을 해보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런 작업이 창조적 계승의 일환일 수도 있다. 세종 시대의 일을 신비주의로 감싸고 종교적인 우상숭배로 몰고가려는 반-이성적이고 반-학술적인 맹종 분위기도 간혹 보이는데, 찻잔 속의 폭풍이기를 희망한다.

- 75) 주요한 것들로서 다음의 책들을 들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한 권도 없다.
 1975『언어의 기원에 대하여: 인간 발화의 진화에 대한 개관』(먹밀린 출판사)
 1977『발화 생리학과 조음 음성학』(먹밀린 출판사)
 1984『생물학과 언어진화』(하버드 대학 출판부)
 1988 (Blumstein과 공저)『발화 생리학, 발화 지각, 조음 음성학』(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1993『독특한 인간: 발화·사고·이타적 행위의 진화』(하버드 대학 출판부)
 2000『인간 언어와 우리 파충류의 두뇌: 발화·통사·사고에 대한 피질하부의 기초』(하버드 대학 출판부)
- 76) 오늘날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두개골 화석에 지나지 않는다.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진화생물학자 해켈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버먼(1984: 제12장)에서는 유아의 구강 구조와 아래 턱뼈의 결합 각도를 각각 네안데

인간의 말소리는 성대 주름의 여단이 운동(1초 동안에 120회 이상의 여단이 운동을 함)에 의해서 자잘한 공기 덩이(puffs)들이 나와 두 곳의 울림통에서 공명(울림, 주기가 배수로 여러 차례 겹치므로 조화음·배음·악음·명음·주기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림)을 만들어 낸다. 입을 크게 벌리면 구조적으로 목구멍 울림통이 좁혀지면서 ‘아’가 만들어진다. 거꾸로 입을 약간만 벌리면 자동적으로 목구멍 울림통이 커지면서 ‘이’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위치에서 혀뿌리가 약간 뒤로 가면서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후설 원순모음 ‘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진화 선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소리들이며, 우리말에서는 어머니 소리(모음)로 부른다. 이것이 분절음의 기본이다. 여기서 추가될 것이 기본적으로 날숨을 방해시키는 자식 소리(자음)들이다. 야콥슨(Jacobson 1959) “왜 유아들은 한결같이 마마, 파파라고 할까?”에서⁷⁷⁾ 전세계 언어에서 수집 보고된 531개 어머니 호칭과 541개 아버지 호칭을 분석하면서, 날숨을 방해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입술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ma, pa’가 당연히 처음 이용되는 소리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자음은 기본적으로 날숨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기를 갖지 않는 비-주기와 또는 소음(noise)에 속한다.

여기서 상정된 가장 소박한 모음 체계는 2단으로 된 세 가지 모음이며, ‘이, 우, 아’[i, u, a]로 표상된다. 만일 3단의 개구도를 지닌다면, ‘에[E], 오’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리학적으로 찾아지는 인간의 기본모음(i, u, a) 및 혼민정음의 글자 표상을 위한 삼재(·, ㅡ, ㅣ; 기본자소) 사이에는, ‘이’를 제외하고 서로 차이를 보인다. 아무도 기본글자로 상정된 ‘으’가⁷⁸⁾ 소리소문없이 쉽사

르탈 인과 크로마농 인의 두개골 화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대 하강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뒤에 네안데르탈 인의 비율로부터 크로마농 인의 비율로 뒤바뀌는 유의미한 통계치를 확보했다.

77) 1971년 나온 『로만 야콥슨 논문 선집』 제1권(헤이그: 무통) 538쪽~545쪽(Why Mama and Papa?)를 보기 바란다. 필자의 옛날 누리집에서 번역을 볼 수 있다(<http://nongae.gnu.ac.kr/~jhongkim>).

78) 예외적으로 김동소(2007: 177쪽) 『한국어의 역사』(정림사)에서는 ‘으’가 음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김동소(2005: 150쪽) 『한국어 특질론』(정림사)에서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직접 제주방언을 모어로 써온 필자에게는 ‘아, 으’가 분명히 뜻을 구분해 주는 변별 음소들이다. 구조주의에서 음소를 결정해 주는 대립쌍들이 필자의 머릿속에 선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으’가 분명히 일정 시기에 우리 국

리 사라져 버리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던져 보지 못하였다. ‘으’가 발음상으로 정작 기본모음이었다면(필자는 아니었다고 믿는다), 기본모음이 일시에 모음체계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논리상의 파국일 뿐이다. 또한 필자가 살고 있는 진주에서는 ‘으, 어’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레포트’(보고서)라고 써 놓아야 할 자리에 ‘레포터’(보고자)라고 쓰기 일쑤이다. 26년 간 진주에서 살면서 필자는 ‘으, 어’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1차 모음군(런던학파의 생각)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언제서부터 세계 언어학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으, 어’의 음소 지위 획득이 진행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젖어 있었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이런 ‘으, 어’와 비슷한 발음이 편안하게 조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대립을 이루어 뜻구분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자음의 발음을 위해 자음 앞에서 실현되거나(내파음) 자음 뒤에서 실현되는(외파음) 특성 때문에 애매모음(schwa, 非모음, 약모음, 모음 아닌 모음)으로 불린다(결코 악센트가 없혀서는 안 됨). 현재 일부 방언에서 불안정하게 실현되는 음소 ‘으’가 어떻게 발음상 기본모음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만일 글자를 만드는 기본 도안요소를 자소(grapheme)라고 부른다면, ‘· — |’는 기본자소에 해당할 뿐이다. 기본자소가 결코 당연히 기본 음소(phoneme)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⁷⁹⁾ 만일 기본자소들이 기본음소가 될 수

어의 역사에 있었다고 상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으’가 단계별로 탈락하는 시기에,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어 발음 형상들이 닫히고(개구도가 작아짐) 구강의 앞쪽으로 치우쳐 가는 경향이 발생하였다고 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운론에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일단 이를 간단히 조음영역들이 ‘협소한 영역을 떠는 전설화 경향’으로 부르기로 한다(쉽게 말하여, 개구도로써 모음을 설명하는 일을 조롱이나 하듯이, 입을 닫고서도 거의 모든 한국어 발음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동반하였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 중에 ‘우, 오’ 사이에서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우’는 원순성에다 다시 입술을 뺄 줄 내미는 돌출성(protrudeness) 자질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이 돌출성 자질을 습관화하지 못하여 늘 어색하게 들리는데, 한국어 교육에서 이런 자질을 전혀 거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연습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에, 애’의 구분이 상실되어 하나로 합쳐지는 일도, 그 빌미가 협소한 전설화 경향에서 나왔을 것임을 이내 짐작할 수 있다.

79) 그렇다면 왜 ‘으 으 이’는 상관속으로 지(支)·미(微) 운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일까(‘으’는 한국 한자음 표시에만 쓰임)? 이 또한 매우 심각한 질문인데, 필자는 확

없다면, 15세기 모음 체계에서 기본음소들은 달리 찾아져야 옳다. 다만 ‘이’를 제외한 다른 기본자소들은 기본음소가 될 수 없다. 이런 불일치 문제 해결이, 이미 선배 학자들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들을 이어나가며 더욱 께진한 진실에 다가서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 문헌>

- 강신항 외 7인(2007),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 중앙연구원
 강신항(1991), <황윤석과 「황국 경세성음 창화도」>, 강신항(2003a)에 재수록됨
 _____(1999), <최세진의 음운 연구>, 《새국어생활》 9권 3호
 _____(2000), 《한국의 운서》, 태학사
 _____(2002), <신숙주와 운서>, 《새국어생활》 12권 3호
 _____(2003a), 《한한 음운사 연구》, 태학사
 _____(2003b), 《(수정증보)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경진생 위음(耿振生 Gěng Zhènsēng 2007), 《근대 관화 어음 연구》, 북경: 어문출판사
 김무림(1999), 《홍무정운 역훈 연구》, 월인
 김완진(1966), <《속침홍무정운》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29~30호
 김인경(2004), <운법직도에 관한 연구>, 충북대 《인문학지》 제28집
 김태경(2002), <운법직도·운법횡도에 보이는 몇 가지 음운현상>, 《중국 어문학 논집》 제21호
 _____(2003a), <운법직도·운법횡도의 음운 체계>, 《중국 어문학 논집》 제22호
 _____(2003b), <명대 독서음과 구어음 비교>, 《중국 언어 연구》 제16집
 김태성(2002), <조선 신숙주의 중국어관>, 《중국 언어 연구》 제14집
 노용균 뒤침(2002), 《황국 경세서》, 대원출판
 리득춘(1993), 《한조 언어문자 관계사》, 박이정
 _____(1994), <조선 학자들의 명·청 한어 음운 연구>, 리득춘(1994) 《조선어 한자어

고한 대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단지, 중국 성운학에서 핵모음만을 놓고 모음체계를 언급할 때에, 3단 2서열(또는 3서열) 체계 정도를 다루는 것을 응용해 볼 수 있다. 네모 칸 □을 놓고서 역사선 \을 그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경우에, 아랫칸 삼각형과 윗칸 삼각형으로 나뉜다. 이때에 u를 제외하고서 다른 핵모음 ə a들은 아랫칸 삼각형에 자리를 잡고, ‘으 으 이’는 윗칸 삼각형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대립 때문에 이들이 상관속으로 묶일 수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음 연구》(박이정)에 재수록됨
- 박병채(1974), <해제, 복원개설>, 《홍무정운 역훈》, 고려대 출판부
- _____(1983), 《홍무정운 역훈의 신연구》,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 배윤덕(2005), 《우리말 운서의 연구》, 성신여대 출판부
- 성원경(1971), <동국정운과 홍무정운 역훈음의 비교 연구>, 성원경(1993) 《한중 음운학
논총》(서광학술자료사)에 재수록됨
- 손건원(孫建元 Sūn Jiànyuán 2010), 《사성통해 금속음 연구》, 북경: 중화서국
- 송기중(1988), <경서 정음>,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제1권
- 신용권(2009), <훈민정음을 사용한 한자음 표기: 번역 노걸대·박통사를 중심으로>, 훈민
정음학회 2009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심소희(2010a), <황윤석의 정음관 연구 1: 이수신편 권20의 「경세 사상 채용지수도」를 중
심으로>, 《중국 어문학 논집》제62호
- _____(2010b), <황윤석의 정음관 연구 2: 이수신편 권 20의 「운학 본원」을 중심으로>,
《중국 어문학 논집》제64호
- 안기섭(1988), <조선시대 대 한어 역음서의 정음·속음의 성격 재고>, 《중어중문학》 제10집
- 안병호(1984, 1996), 《조선 한자음 체계의 연구》, 한국문화사 재간행
- 안병희(2002),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새국어생활》 제12권 3호
- _____(2007), 《최세진 연구》, 국어학회(태학사)
- _____(2007),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 출판부
- _____(2009),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 양 군(楊軍 Yáng Jūn 2003), 《칠음략 교주》, 상해: 상해사서
- _____(楊軍 Yáng Jūn 2007), 《운경 교전》, 항주: 절강대학 출판사
- 양오진(2008), 《한학서 노걸대·박통사 연구》, 제이앤씨
- _____(2010), 《한학서 연구》, 박문사
- 영기부(甯忌浮 Níng Jífú 1997), 《고금운회 거요 및 상관 운서》, 북경: 중화서국
- _____(甯忌浮 Níng Jífú 2003), 《홍무정운 연구》, 상해: 상해사서
- _____(甯忌浮 Níng Jífú 2009), 《한어 운서사: 명대 권(卷),》, 상해: 인민출판사
- 왕 력(王力 Wáng Lì 1979, 송용준 뒤침 2005), 《중국 시율학》 총4책, 소명출판사
- 유창균(1974), 《몽고운략과 사성통고의 연구》, 형설출판사
- 유효남(劉曉南 Liú Xiǎonán 2007), <사성통해 금속음을 통해 본 명대 전기 관화의 입
성>, 경진생 위음(耿振生 Gěng Zhènsheǹg 2007)에 수록됨
- 윤상철 뒤침(2002), 《황국 경세》 총3책, 대유학당
- 이돈주(2003), 《한중 한자음 연구》, 태학사
- 이동림(1968), <홍무정운 역훈과 사성통해의 비교: 사성통고의 재구>, 동국대 《논문집》 5

- _____ (1972),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 27자’ 책정 근거: 훈민정음 제정은 ‘예부 윤락’ 한 자 속음 정리로부터>, 《무애 양주동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 _____ (1975), <훈민정음 창제 경위에 대하여: ‘언문자모 27자’는 최초 원안이다>, 동국대 《국어국문학 논문집》 9·10집
- _____ (1993), <국문 자모의 두 가지 서열에 대한 해명: 운부모음(중성),의 설정과 함께>, 《춘허 성원경박사 화갑기념 한중 음운학 논총》
- 이승녕(1959), <홍무정운 역훈의 연구>, 《진단학보》제20호
- 이영월(2004), <사성통해의 정음·속음·금속음 성격 고찰>, 《중국 어문논집》 제29호
- 이영월·장재웅(2005), <사성통해에 기재된 ‘중원음운’ 주석 연구>, 《중국학 연구》 제32집
- 이재돈(1993), <사성통해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중국문학》 제21집
- _____ (1999), <최세진의 중국어 음운학 연구>, 《중국학보》 제40집
- 이재연구소 엮음(2009),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 경인문화사
- 장위동(张卫东 Zhāng Wèidōng 2000), <정음·속음이 모두 시음(時音),이라는 논변>, 《중국학 연구》 제19집
- _____ (张卫东 Zhāng Wèidōng 2007), <근대 한어 관화사의 하한선을 논의함>, 경진생 엮음(耿振生 Gěng Zhènsēng 2007)에 수록됨
- 정 광(2004), <한국 한자음의 성립과 변천>, 《국어사 연구》 제4호
- _____ (2005), <신숙주와 훈민정음 창제>, 《국제 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5호
- _____ (2009), 《몽고자운 연구》, 박문사
- _____ (2010), <해제 원본 노걸대>, 《역주 원본 노걸대》, 박문사
- 정연찬(1972), 《홍무정운 역훈의 연구》, 일조각
- 정영지(2004), <사호(四呼),의 명칭고>, 《언어 과학 연구》 30집
- 최영애(1999), <등운 문법(門法), 고석>, 최영애(2011), 《중국 음운학 논집》(학고방), 에 재수록됨
- 주성일(2008), <신숙주와 최세진의 중국어 정음관>, 《중국학보》 제57집
- _____ (2011), <사성통해에 반영된 근대한어 어음 연구>, 《중국문학 연구》 제42집
- 최삼룡 외 4인(1994), 《이재 황윤석: 영·정시대의 호남실학》, 민음사

부록 : <통고 사성도>(通攷四聲圖)

- 《자휘》(1615년),의 횡도·직도를 써서 비교 기준으로 삼고 분류하였으며, 또 ‘훈민정음’을 써서 소리에 따라 배열하였다.
- 즉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정한 <사성통고>인데, 《역 홍무정운》에 들어가 있고, 《운회》에도 들어가 있다.

사 성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재가 정해 놓은 운미 및 호(呼)										
○	공1 합구정하 ㄱ	합구	公궁	횡1 직1	孔궁	횡1工 직1顚	貢궁	횡1 직1	穀구	횡1谷 직1
	우2 합구부하 ㄴ	촬구	弓궁	횡2靠 직6	拱궁	횡1穹 직6	供궁	횡1穹	菊구	횡2菊 직6
	우3 합구부하 ㄴ	촬구	雄황	횡2 직6	○	횡2○ 직6洶	○	횡2○ 직6洶	○	횡2○ 직6旭
	상4 개구부상 ㄷ	○혼호	江강	횡14姜 직18	講강	횡1 직18襻	絳강	횡14 직18	覺강	횡14脚 직18
	상5 개구부상 ㄷ	횡제치 직혼호	○		○		○		脚강	횡14
	상6 개구부상 ㄷ	혼호	○		○		○		覺강	횡10郭銀
	상7 개구부상 ㄷ	횡제치 직혼호	○		○		○		爵강	횡14 직18
1	치8 개구부하 ㄷ	제치	羈계	횡18基 직4基	己계	횡18几 직5	寄계	횡18記 직5	吉기	횡49 직5
	치9 개구부하 ㄷ	○제치	○		○		季계		○	
	공10 합구정하 ㄱ	○합구	惟위		唯위		○		○	
	공11 개구정하 ㄱ	횡제치 직교치	貴즈	횡18玆 직21	紫즈	횡18子 직21	恣즈	횡18 직5	櫛즈	횡49卽 직21○
	공12 합구정하 ㄱ	○합구	嬌귀		癸귀		○		○	
	공13 합구정하 ㄱ	합구	規귀	횡15 직19	軌귀	횡15 직19詭	媿귀	횡15貴 직19貴	○	
	공14 합구정하 ㄱ	합구	麾휘	횡15灰 직19	毀휘	횡15 직19	諱휘	횡15誨 직19	○	횡15○ 직19○
	공15 합구정하 ㄱ	○합구	○		○		恚휘		○	
	우16 합구부하 ㄴ	촬구	居규	횡16 직5	舉규	횡16 직5	據규	횡16句 직5	○	횡7橘 직5·13橘
	공17 합구정하 ㄱ	합구	孤구	횡17 직20姑	古구	횡17 직20	顧구	횡17故 직20	○	횡1谷 직1穀
	각18 개구부하 ㄷ	○제치	雞계		啓계		計계		○	
	각19 개구부상 ㄷ	○제치	佳개		○		懈개		○	
	치20 개구부상 ㄷ	○제치	○		解해		○		○	
	공21 합구정상 ㄱ 겸 개구부상하	합구	乖괘	횡19 직22	掛괘	횡19枹 직22枹	卦괘	횡19怪 직22怪	○	횡 직22○
	상22 개구부상하	개구	該개	횡20 직23	改개	횡20 직23	蓋개	횡20 직23	○	횡38革 직7格23

ㄴ	우23 합구부하 ㄱ	칼구	鈞균	형7 직9	梱균	형71君 직13困	據균	형7君 직13君	橋균	형7 직13
	치24 개구부하 ㄱ	형제치 직제치페구 ㉠제치계순	巾긴	형9 직10	緊긴	형9謹 직10	斬긴	형9巾 직10	○	형49吉 직9戟
	우25 합구부하 ㄱ	칼구	筠운	형7 ○ 직13雲	隕운	형7允 직13	運운	형7 직13	聿유	직13
	치26 개구부하 ㄱ	형제치 직제치페구 ㉠제치계순	欣힌	형9 직10	謹힌	형91欣 직10廳	焮힌	형9鬱 직10鬱	○	형49翕 직9號
	궁27 합구정하 ㄱ	합구	昆균	형6棍 직15	袞균	형6 직15	論균	형6滾 직15	○	형16谷 직15骨
	상28 개구정하 ㄱ	개구	根근	형8 직8	懇근	형8艮 직8顛	艮근	형8 직8	○	형38革 직7格
	상29 개구부하 ㄱ	○제치	韃건		蹇건		建건		訐거	
	상30 개구정하 ㄱ	개구	干건	형30 직34	筭건	형30趕 직34程	吁건	형30幹 직34幹	葛거	형35閣 직34
	상31 개구정상 ㄱ	○개구	○		○		○		怛다	
	궁32 합구정하 ㄱ 개구정하 ㄱ	합구	官관	형28 직32	管관	형28 직32	貫관	형28 직32	括귀	형11郭 직32
	치33 개구부상 ㄱ	제치권설	間간	형34 직38艱	簡간	형34 직38	諫간	형34 직38	戛가	형34甲 직38
	궁34 합구정상 ㄱ 개구정상 ㄱ	합구	關관	형33 직37	撰관	형33○ 직37○	慣관	형33 직37	刮과	형33 직37
	각35 개구부하 ㄱ	제치	堅건	형31 직35	繭건	형31蹇 직35	見건	형31 직35	結겨	형31 직35
	우36 합구부하 ㄱ 개구부하 ㄱ	칼구	涓균	형29 직33	畎균	형29卷 직33捲	睨균	형29眷 직33絹	厥귀	형29 직33
	우37 합구부하 ㄱ 개구부하 ㄱ	○칼구	○		卷권		變권		玦귀	

ㄷ	각40 개구부하 ㄱ 합구정상 ㄱ	○제치	驍교		皎교		矯교		○	
	각41 개구부하 ㄱ 구정상 ㉠개	제치	驕교	형39 직3	矯교	형39 직3	叫교	형39敎 직3	○	
	치42 개구부상 ㄱ 합구정상 ㄱ	제치	交조	형38 직42	絞조	형38-9 직42	敎조	형38-9 직42	○	형13各 직2各
	상43 개구정상 ㄱ 합구정상 ㄱ	개구	高조	형37 직41	杲조	형37搞 직41	誥조	형37告 직41	○	형13各 직2各
	상44 개구정하 ㄱ	개구	歌거	형27 직31	哿거	형27箇 직31	箇거	형27 직31	○	형13各 직2各
	궁45 합구정하 ㄱ 개구정하 ㄱ	합구	戈귀	형26 직30	果귀	형26 직30	過귀	형26 직30	○	
	우46 합구부하 ㄱ 개구부하 ㄱ	칼구	癸귀	형24○ 직29漈	○	형 직29○	○	형 직29○	○	형29厥 직33厥

2012년 훈민정음학회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각47 개구부상 ㅏ	제치	嘉가	횡23加 직26	賈가	횡23假 직26	駕가	횡23 직26	○	횡 직
궁48 합구정상 ㅏ 개구정상 ㅏ	합구	瓜과	횡22 직25	寡과	횡22 직25	跨과	횡22瓜* 직25卦	○	횡11郭 직32括
치49 개구부상 ㅏ	제치	牙아	횡23 직26	雅아	횡23 직26	訝아	횡23 직26	○	횡 직
각50 개구부하 ㄱ	제치	嗟저	횡25 직28	且저	횡25姐 직28姐	借저	횡25 직28	○	횡31節 직31節
치51 개구부상 ㅏ 부하 ㄱ	제치	加가	횡23	炔썩		藉꺼		○	

상52 개구정상 ㅏ	개구 ㉠㉡ 혼호	岡강	횡13 직2	吭강	횡11岡 직2	鋼강	횡11岡* 직2綱	各각	횡13 직
궁53 합구정상 ㅏ 개구정상 ㅏ	합구 횡㉠㉡ 혼호	光광	횡11 직16	廣광	횡11 직16	誑광	횡11梟 직16	郭과ㅏ	횡11 직16
궁54 합구정상 ㅏ 개구정상 ㅏ	합구 횡㉠㉡ 혼호	黃황	횡11 직16	晃황	횡11 직16	況황	횡11黃* 직16	○	
상55 개구정상 ㅏ	횡 혼호 직 합구	莊장	횡14 직16	○	횡14壯 직16+壯	壯장	횡14 직16	○	횡11捉 직16捉
각56 개구부상 ㅏ	◦제치	○		頰창		○		○	
치57 개구부하 ㄱ	횡제치 직제치 계순	京경	횡4 직9	景경	횡4警 직9	敬경	횡4 직9	○	횡4吉 직9戟
치58 개구부하 ㄱ	개구	行행	횡3恒 직7衡	杏형	횡3 직7	行행	횡3衡* 직7	黑회	횡3·8効 직7効
치59 합구부하 ㅏ 개구부하 ㄱ	혼호	兄형	횡5 직14	○	횡5兄 직14誦	○	횡5兄* 직14○	洫휘	횡 직14殫
치60 개구부하 ㄱ	◦제치	經경		劉링		勁경		○	
상61 개구정하 ㅏ 부하 ㄱ	개구	楯궁	횡3庚 직7庚	肯깁	횡3便 직7便	巨깁	횡3更* 직7更	格괴	횡3·8効 직7
상62 개구정하 ㅏ 부하 ㄱ	◦개구	○		○		○		額의	
치63 개구정하 ㅏ 부하 ㄱ	◦개구	○		○		○		克괴	
궁64 합구정하 ㅏ 개구부하 ㄱ	횡 혼호 ㉠ 직 합구	○	횡5肱 직17航	礦명	횡5 직17	○	횡5肱* 직17○	國귀	횡4 직17
궁65 합구정하 ㅏ 개구부하 ㄱ	◦합구	○		○		○		號귀	
우66 합구부하 ㅏ 개구부하 ㄱ	혼호	○	횡5傾 직14傾	頃깁	횡5 직14	○	횡5頃* 직14○	○	횡 직14関

ㄷ	치67 개구부하 ㄱ 겸 합구정하 ㄱ	제치	鳩구	횡41 직44	九구	횡41久 직44	救구	횡41 직44	○	횡 직44○
	치68 개구부하 ㄱ 겸 합구정하 ㄱ	제치	繆구		糾구		顛구		○	
	상69 개구정하 ㄱ 겸 합구정하 ㄱ	개구	鈎구	횡40 직43	壽구	횡40苟 직43苟	蕁구	횡40姤 직43構	○	횡 직
	상70 개구정하 ㄱ 겸 합구정하 ㄱ	개구	稟구	횡40○ 직43	培구	횡40搥 직43甌	復구	횡40○ 직43賠	○	
	상71 개구정하 ㄱ 겸 합구정하 ㄱ	횡제치 직개구	浮구	횡41 직43	婦구	횡41阜 직43	戊구	횡41○ 직43茂	○	
ㄹ	치72 개구부하 ㄱ	폐구 ㉠ 제치	金구	횡10 직11	錦구	횡10 직11	禁구	횡10 직11	○	횡49吉 직11急
	상73 개구정하 ㄱ	폐구	簪구	횡10 직12	○	횡10簪 직12○	諍구	횡10 직12	○	횡 직12戢
	상74 개구정상 ㄱ	폐구	甘구	횡35 직39	感구	횡35 직39	紺구	횡35 직39	○	횡35罔 직39罔
	각75 개구부하 ㄱ	폐구 ㉠ 제치	兼구	횡32 직36	檢구	횡32 직36	劍구	횡32 직36	○	횡31結 직36頰
	각76 개구부하 ㄱ	폐구 ㉠ 제치	箱구	횡32 직36	歉구	횡32欠 직36	歉구	횡32欠 직36欠	○	횡31結 직36廩
	각77 개구부하 ㄱ	폐구 ㉠ 제치	嫌구	횡32 직36	○	횡32嫌 직36黷	○	횡32○ 직36妾	○	횡31結 직36協
	각78 개구부하 ㄱ	폐구 ㉠ 제치	枕구	횡32 직36	險구	횡32 직36	○	횡32險 직36妾	○	횡31結 직36脅
	각79 개구부상 ㄱ	제치권설이폐 ㉠ 제치	監구	횡36監 직40監	減구	횡36 직40	鑑구	횡36 직40	○	횡34甲 직40夾